미래 교회의 예배

코로나대응 웨비나(Webinar) - 코로나와 공존하는 미래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평화교회 50 1968-2018



최종인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박사

평화성결교회 담임목사

미래 교회의 예배

평화교회를 시무하면서 비전과 기도중 하나는 우리교회가 '교단 행사의 십일조는 감당'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교단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의 십일조를 부담하고, 행사때마다 참가인원이 부족할 때 적어도 십분의 일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자는 기도 제목이다. 마침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에서 교단 코로나대응 웨비나(webinar)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그리고 "코로나와 공존하는 미래교회"를 주제를 생각하며,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 대신 성급한 마음이 있어 완전하지 않은 점을 이해바란다.

사실 이번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관심 갖고 있었던 내용이다. 나는 과거 역사도 좋아하지만, 특히 미래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하면서 미래 트랜드 보고서나 미래 전망보고서를 찾아 읽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펴낸 <국가 미래전략 201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에서 편 <10년후 대한민국>,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등을 참고했다. 대신 미래사회의 트랜드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미래교회'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교회와 예배에 관심이 많다. 2020년 교회 표어를 "더 잘 예배하는 교회"로 정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의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예배에 관한 책이나 논문을 약 400편 정도 갖고 있으며, 늘 연구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교회의 최고 사명은 예배에 있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다. 또한 성도들이 잘되고 복을 받는 비결도 예배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리도록 회중을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나는 저널리즘이나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지금은 강남 역삼동으로 옮겨갔지만, 충현교회가 충무로에 있던 시절, 신학생 때 그 교회의 도서관에 자주 갔다. 책들을 좋아하는 내겐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마침 지난 6월에 소천하신 조동진 목사가 60년대 미국 교회 소개한 책을 번역해 놓은 것을 보았다. 미국교회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미디어 선교에 관심을 가졌다. 그 후 80년 대 초, 서강대에서 최초로 열렸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세미나를 들으며 미디어에 눈을 뜨게 되었고, 중앙대에 진학하여 신문방송학 석사를 받았다. 미국 유학을 결심하고 Wichita State University를 거쳐United Theological Seminary에 간 이유도 미디어선교를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좋아하는 주제들인 미래교회와 예배,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 짧지만 중요한 주제를 모아 책으로 내게 되어 기쁘고 마음이 설렌다. 그동안 내었던 책들이 모두 그랬지만, 이 책 역시 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 기존에 발표된 많은 논문과 책들, 신문기사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고, 생각을 모아 기술한 것 뿐이니 공로는 선행 연구자들에게 돌리고 싶다. 다만, 이 책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었으면 싶다. 동역자들이 이 책을 통해 미래교회를 준비하고 대응하기를 바란다. 각 주제의 끝부분에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에 참고하도록 우리교회에서 공부한 내용을 첨부했다. 한국교회가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미래의 도전에 준비했으면 하는 소망이 가득하다.

추신: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뒤에 참고문헌을 따로 적지 않았고 대신 각주에 담아 소개했다. 각주의 영어 책들과 논문들은 대부분 다운받아 파일로 저장하고 있으니, 연구에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저자에게(commission@naver.com)나 평화교회(pyunghwa.org)에 요청하기 바란다.

최종인 목사

미래교회의 예배

Contents...

1 코로나19와 예수의 예배 / 3
2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 17
3 밀레니얼 세대의 예배 / 31
4 이머징 예배 / 45
5 스타벅스 스타일의 예배 / 61
6 인공지능(AI)이 설교하는 예배 / 75
7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예배 / 90
8 평일에 예배한다 / 104
9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 120

미래 교회의 예배

1. 코로나19와 예수의 예배

코로나19가 사회 각 분야에 핵 폭발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은 물론 온갖 문화생활, 세미나, 공연, 스포츠까지 취소되면서 전 세계 시민의 평범한 일상은 통째로 뒤바뀌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말이 실감나는 때이다. 당연히 교회도 위기와 불안이 비껴가는 무풍지대가 될 수 없어, 교회들마다 예배당에서 드리던 예배를 영상예배로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상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교회들, 작은 규모의 교회들, 어른들만 모여 영상예배가 어려운 교회들은 더욱 힘들다. 영상과 함께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싶어 한국에서는 예배당예배를 겸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만, 여전히 외국의 경우는 회집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예배가 큰 이슈가 되는 시절이 되었다.[1] 이런 시대에

1) 코로나 초기에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교회당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그후에도 계속 뉴스에 교회당 건물을 비추어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곳으로 오해하게 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MBC뉴스, "코로나19 예방…차량 안에서 예배" 2020. 3. 30; 교단과 개 교회에서 급하게 예배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기독교타임즈, "코로나19에 따른 예향교회 예배지침", 2020. 2. 27; 국민일보, "예장통합, 주일예배 관련 4차 대응지침 논의", 2020. 3. 12; 국민일보, "예장통합 "온라인 예배 자료·동영상 제공", 2020. 3. 17.

예수의 예배는 어떠했는지 살피면서 코로나를 대응하고자 한다.

먼저 예수와 유대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20세기 중엽에 제기된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이른바 “새로운 연구(New Quest)” 이후 역사적 예수 안에 적어도 “암묵적 기독론”이 나타난다는 근거에서 예수를 유대교와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한동안 있었다.[2] 그러나 오늘날 예수 연구를 통해 예수는 본질적으로 유대교와 분리된 인물이 아니며, “주변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유대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3]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면, 예수가 동시대 사람들과 빚었던 갈등은 명백히 유대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지 유대교에 맞선 갈등이라 말할 수 없다. 예수는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 어떤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꾀한 인물이 아니라, 유대교 내부에서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4]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최근에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예수와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기에,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관습을 전반적으로 따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유대교의 종교 관습을 공격한 경우는 예외다. 예수께서 최후 만찬을 유월절 식사로 거행하셨으므로, 유대인들이 당시 가정에서 행한 유월절 종교관습을 공유하신 것으로 보인다. 예수는 갈릴리의 회

2) 명시적 기독론과는 달리, 이 접근법은 예수를 다양한 비유적 등장인물의 배후에 있는 유일한, 혹은 일차적인 지시체로 보지 않지만, 어느 수준에서 자신을 가리켜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암묵적 기독론이다. 크레이그 블롬버그, 『비유해석학』, 김기찬 역, (생명의말씀사, 2000), 410.

3) 프레더릭 J. 머피, 『초기 유대교와 예수운동』, 유선명 역, (새물결플러스, 2020). 머피는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복음서를 대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예수가 매 순간 언약 가운데 토라에 순종하는 유대인으로 자신을 이해했음을 강조한다. 그는 유대교를 그 자체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아야 함을 역설한다.

4) 유지미, “역사적 예수의 처형 배경에 관한 고찰: 복음서에 드러난 적대자들의 예수 이해”, 「장신논단」, 제39집(2010), 101. 이 논문은 예수를 로마권력과 충돌하는 자로 보았다는 주장을 소개한다.

당예배도 참여하셨고(눅 4:16-30), 절기 때는 성전에도 가셨다.[5] 예수와 초대교회가 드린 예배는 그레코-로마세계라는 이교제사보다는 유대인의 예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유대교를 이루는 중요 구성 요소인 예배 및 경건생활에 대해 예수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7] 이는 초기교회 시절 생겨난 기독교 예배의식의 생성과 발전에 근거를 제시하며 동시에 기독교 예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 제의 전통에 대해 가졌던 예수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이해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좋은지 예수의 입장에서 찾아보려 한다.

거리의 예배

예수 당시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자 권력의 중심지였다. 동시에 유대교의 중심지로서 축제순례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유대적 제의의 고향"이었으며 "하나님이 현존하는 장소"였다. 예수 역시 이곳을 중요한 장소로 여기고, 여기서 붙잡혀 십자가를 지셨다.[8]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예로부터 주어진 명성과 의미

5) 요한복음은 예수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한다(요 2:13; 5:1; 7:10; 10:22, 23; 12:12).

6) 초대교회의 예배가 대립의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다신교적이며 혼합주의적인 그레코-로마 세계의 예배에 관해서는 R. P. Martin, "Worship" in G.F. Hawthorne (eds.),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Leicester: IVP, 1993), 983-984. 참고.

7) 윌리엄 W. 심프슨, 『유대인의 예배와 기도』, 류재영 역, (예본출판사, 1999). 이 작은 책은 유대인들의 종교생활, 기도생활과 유대 전통의 유산들을 소개한다.

8) Philip R. Davies, "Passover and the Date of the Crucifixion" in Alan Avery-peck, Craig A. Evans, Jacob Neusner, *Earliest Christianity Within the Boundaries of Judaism: Essays in Honor of Bruce Chilton* (Boston:

를 잃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시 26:8)이 거하는 장소인 성전을 찾았다. 성전은 상당한 규모의 성전 수입과 세금 수입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도 예치하는 국고였다. 따라서 성전에 보관된 재화의 양이 상당했을 것이 분명하다.[9] 이처럼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을 축으로 유대교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도리어 거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한 것이다.

성전과 성전에서의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J. M. Nielen은 이것을 '예속'과 '자유'로 표현하기도 했다.[10] 한편으로는 성전 예배의 요소를 받아들여 이어 가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어떤 요소를 제한, 수정할 권한과 자유를 가졌다는 의미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지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을 따르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눅 6:4), '내 아버지의 집'(요 2:16)이었다. 구약시대에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했고, 새 시대, 즉 자신을 통한 완성의 시대의 여명에도 그 영속적 사명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자신이 그곳에서 완성의 제물이 되는 것이 성전의 남아 있는 역할이었다.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마 21:13과 병행구)이라고 부르신 것에도 이 긍정성이 어느 정도 묻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전예배에 대한 한계도 의식하고 계셨다. 예수는 성전만을 기도의 장소로 지정하거나 성전에서만 기도하시지 않고 어디에서나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마 12:6)가 예수님이시라면 새로운 예배가 성전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된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Brill, 2016), 267-280. 참조.

9) E. W. Stegemann and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고대 지중해 세계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손성현.김판임 공역, (서울: 동연, 2008), 209-210. 참조

10) Josef Maria Nielen, *The Earliest Christian Liturgy*, tran, Patrick Cummins, (St. Louis, MO: B. Herder Book Co. 1941). 330.

물론 당시의 종교적 의식에 따라 예수 역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신 바 있다.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축제로 통하는 유월절 축제 때 원근 각처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은 것이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분명하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직결된 거룩한 도시의 백성을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앞에 세우고, 최후의 시간에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가 그곳에서 보낸 마지막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을 소개하나, 그가 정결 예식이나 성전 예배에 참여했다는 일말의 암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샌더스(E. P. Sanders)는 예수와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받은 사실이 당연히 전제되었다고 말하나,[11] 그와 관련된 전승은 다른 해석을 요구한다. 요한복음은 유월절 축제와 관련된 정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제자들의 정결예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세족식 보도를 전하면서, 세족식이야말로 모든 정결 예식의 완성이라고 선언한다(요 13:10). 이로 미루어 예수는 정결예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이 가능하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복음서가 있다. 이에 따르면, 한 바리새파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해 "너는 목욕도 하지 않았고, 네 제자들은 발도 씻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정결한 영역에 들어와 성물을 바라보느냐?"고 비난한다. 역시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손 씻는 예절을 하지 않고 빵을 먹는다는 비난을 예수께 퍼부었던 것이다. 그 정결예식이란 다름이 아니라 주먹을 오그리고 물속에서 흔들며 씻는 예절이다. 그러므로 더러운 손으로 빵을 집어먹는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예절을 치르지 않음으로써 '조상들의 전통'을 무시했다는 비난이다. 유대인들은 손 씻는

11)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PA: Fortress Press, 1977), 59-60.

조상들의 전통에 관심을 가졌으나 예수께서는 내적 쇄신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다.[12]

복음서 전승이 예수의 성전 예배 참석 여부에 대해서 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전 지역 내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도하고 있다(막 11:27-33; 14:49; 요 7:14; 8:20). 이로 미루어 예수는 제의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 있는 성전 지역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13]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성전을 찾는 이들을 위해 거리에서 예배하였다.[14]

회당의 예배 참석

초기 기독교 예배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회당 예배였다. 예수께서는 자주 회당에 들어가셨고 회당예배에 참석하셨으며,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이나 사역의 중심지로 선택한 크파르 나훔(가버나움)을 비롯하여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복음서들은 증언하고 있다.[15] 눅 4:16은

12) 가톨릭신문, "손 씻는 정결예식과 내적쇄신의 대결", 1990. 12. 16.

13) 조경철, "신약성서의 바실레이아(βασιλεια) 개념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세계」 제46권(2003). 205-206. 막 1:15에 따르면, 예수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함으로 공생애의 첫발을 내딛었다. '왕국'이나 '나라'로 번역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왕의 위엄, 권력을 의미한다.

14) 마 11:16-19에 나오는 장터 아이들 비유 역시, 결국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나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이다.

15) 마 4:23; 막 1:39; 눅 4:44. 예수는 주로 갈릴리 지역의 회당을 이용하셨다. 성지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결과는 이러한 기록의 정확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예수 사역 당시를 포함하여 성지(이스라엘 땅)에 존재했던 고대 회당들의 위치를 보면,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회당들이 발견/발굴되지 않고 있는데,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늘 해 오시던 일임을 알려준다. 또한 바울 역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했고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행 17:2). 여기서 누가는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바울이 늘 해오던 '자기의 관례'라고 소개했다.

예수와 바울이 회당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이 기독교 예배가 회당 예배를 직접 물려받은 것이라는 증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회당 예배에 익숙해 있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독교 예배가 회당 예배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회당 예배를 비교적 자세하게 고찰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예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회당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던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졌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회당은 유대 본토로 확산되었다. 예수 당시 팔레스틴에만 적어도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는데,[16] 웬만한 유대인 거주지에는 어김없이 회당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신약성경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회당예배의 시작은 확정 짓기 어려우나,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에스라 시대 이후에는 회당예배를 통해 "율법과 경건생활을 준수하는 것을 그들의 생활 전체에서 가장 필수적인 일로 여겼다". 복음서에는 예수가 회당예배에 참여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다(막 1:21; 1:39; 6:2; 눅 13:10; 요 6:59; 18:20). 예수가 설교하고

그 북쪽인 갈릴리 지방에는 크파르 나훔, 바르암, 메이론, 나브라테인, 코라진, 감라를 비롯하여 약 40여 곳에 회당들이 발굴되어 있다. 크파르 나훔 회당은 성지에서 나온 회당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당이다. 고세진, "신약성서 고고학연구 12: 예수와 회당",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제648호(2012), 92-93.

16) 기독교연합신문,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예배". 2004. 4. 25.

가르치는 장소로 회당을 택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누가 복음 4장 16절에 따르면 누가는 예수가 "관례대로", 즉 규칙적으로 회당을 방문한 것으로 묘사한다. 이는 예수의 회당 사역을 체계화시키려는 누가의 편집 의도와 관련이 있다. 복음서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예수가 회당을 방문할 경우 방문의 일차적 목적은 회당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한 활동하기 위해서 회당에 갔다는 사실이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과 사역을, 예배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장소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을 배울 수 있다.

죄인들과의 교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교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경건의 실천 덕목이다. 예컨대, 토빗 12:8은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 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cf. 행 10:31). 유대 신앙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선행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다.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한 예수 전승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6절, 16-18절에는 복음서 저자의 편집 부분(특히 도입부)이 포함되었으나, 이 단락의 배후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역사적 예수의 음성이 담겨 있다.

예수는 1세기 유대인으로 사셨다. 그분은 아주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특정 종교문화를 경험하셨다. 성경은 예수께서 당시 유대 공동체의 문화와 로마제국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예식, 수행과 토라로 표를 삼은 사람들을 보고 배우셨다.[17] 그분의

17) 키스 앤더슨, 『경청의 영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박하고 평범한 방법

삶과 그분의 영성은 1세기 유대교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경건을 대표하는 3가지 덕목을 사람들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회당과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러한 선행을 은밀하게 가식 없이 할 것을 요청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러한 선행을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예수의 요청은 분명 당시 경건 실천의 관행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누가 자료에서 유래한 누가복음 18장 9-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역사적 예수에게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 기도와 금식을 거론하는 이 비유에서 예수는 경건의 선행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세리를 칭찬한다. 이로써 경건의 실천을 자랑하며 떠벌리는 당시 종교적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배와 예전의 중요성을 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것에 비례하여 예배의 의식화 경향이 자라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구약시대의 성전 및 예배 전통에 대한 관심을 초래한 것 같다. 바로 이 점에 우려가 생긴다. 그것은 구약의 성전 관련 제의적 전통이 점차 강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토대한 기독교 본래의 예배 정신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이다. 그러한 우려는 놀라운 외적 성장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심각한 교회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 예배에 대해 가졌던 예수의 입장을 살펴보는 일이 의미가 있다. 초기 그리스도교 케리그마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예수”야말로 오늘의 기독교가 지향해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이는 예배와 관련해서도 타당하다. 즉, 예수가 당시 유대교 예배에 대해 가졌던 입장과 태도를 통해 오늘의 기독교 예배가 지향해야 할 길을 배

들』, 김성웅 역, (넥서스CROSS, 2017), 201.

울 수 있다. 유대교 예배에 대한 예수의 태도와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예수는 일상의 모든 영역을 율법 전통에 따라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규정짓는 삶의 제례화에 저항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현존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곧 구약과 유대교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거룩한 제의 직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초기교회가 일시 성전예배에 참여했으나 마침내 그것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목회직의 거룩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가진 오늘 한국 교회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예수가 경건과 제의의 형식 전체를 거부했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수는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 자기가 지향했던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위한 중요 한 단초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와 '최후 만찬'이다. 주기도를 통해 예수는 가식 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기도 본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 또한 최후 만찬은 성전예배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예배를 창시하는 예수의 예언자적 상징 행위였다. 그것은 임박한 죽음에 앞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그의 유언으로서 죽음과 무의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끝까지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곧 오늘의 교회가 종교형식과 경건의 모양만을 따르는 화석화된 조직이 아니라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유언이다.

코로나19와 예수의 가르침

지금까지 예수의 예배에 대해 몇 가지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현대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른 코로나 전염병과 공존하는 이 시대와 미래에

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려 한다. 예수는 분명히 성전예배를 개혁하셨다. 우리도 오늘날 모이는 장소로서의 성전 개념을 탈피하여 개혁이 필요하다. 종전과 같이 모이기 힘들어지고, 회집이 어려운 때에 '성전 안으로'의 개념에서 '성전 밖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리의 예배와 같은 찾아가는 예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한 장소에 정주하지 않으셨고 계속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나누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거리에서 만나신 것을 보라. 사람들이 걷고, 일하고, 쉬고, 모이는 곳이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 장소의 변화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자는 것이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실 때에는 항상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자리였다. 미래의 예배는 쓸쓸하고, 엄숙하기만 하고, 조용한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축제의 예배가 될 전망이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예배를 잘 전승받아 모일 때마다 애찬을 나눴고, 그 애찬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우리는 모이기만 하고 웃음이 없는 예배, 성찬은 나누지만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예배에서 탈피해서 감사로 넘치는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 자기들만의 잔치에 심취하지 않았고, 주님의 관례에 따라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갔다. 특히 고난 받고,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 만났고 초청했다. 바로 그런 사랑의 섬김이 지중해를 건너 로마제국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초대교회는 유대교 회당의 전례에 따라 그들의 자녀는 물론, 예수를 새로 믿기로 작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했다. 새 신자가 세례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교육을 거친 후 예식을 가졌다. 코로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반석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모래위에 세우는 이를 구분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교육에 힘써 알곡 신자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극성스런 바이러스가 교회를 흔들어도 끄떡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성경 속으로
회당에 가신 예수님
눅 4:16-30

1. 예수님은 어디에서 가르치셨습니까? (눅 4:15)

2.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에서 늘 하시던 대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눅 4:16)

3. 예수님이 고르신 본문은 어디였습니까? (눅 4:18)

4.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눅 4:22)

5. 예수님이 증언하신 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눅 4:28-29)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흥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 출신인 예수는 자기들과 함께 지내던 동네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곳곳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칭송을 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눅 4:15). 그런 예수님이 고향에 오자, 많은 주민들이 환영하고 반겼을 것입니다. 여기 고향에서도 기적을 행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고향 나사렛에 도착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즉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는 것, 교회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던 회당 제도는 바벨론에서 포로생활하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집회 장소였습니다.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부르는데, '모임'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시

나고게(synagoge)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회당은 유대인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회당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며, 공동체의 크고 작은 일도 논의했습니다. 회당에서 공동체의 종교와 교육, 정치가 모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 예배와 학습 장소로 사용합니다.

안식일에 모였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서자 모두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낯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성경을 찾아 읽으시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건네자, 예수님은 익숙하게 펴서 자신에 대해 예언한 구절을 읽으십니다. 이사야 61:1-2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눅 4:21). 예수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주의 영을 힘입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눅 4:18-19).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은혜로운 말씀으로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눅 4:22). 그런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은 "틀림없이 당신들은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라는 속담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한번 해 보시오"'라고 말할 것이요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고향이 아니라 시돈 땅에서, 수리아 사람에게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눅 4:25-27).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 밀쳐

죽이려 합니다(눅 4:29). 그러나 주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 사이를 지나서 가십니다(눅 4:30). 그리고 다시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서도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눅 4:31).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을 습관대로 찾으신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종교인들처럼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적 배경에서 복음을 전하시려 회당에 가신 것입니다.

회당에 가신 예수님처럼, 1) 우리는 교회 가는 일이 일정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2) 성경 읽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3) 반응에 좌우됨이 없이 바른 말씀 전하고,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4)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래 교회의 예배

2.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다양한 정보 매체들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하루라도 휴대전화를 놓치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아침에 일어나 기상정보와 간밤의 뉴스를 검색하고, 출근길의 교통정보를 확인한다. 출근하면서 주식정보를 보며, 환율을 확인한다. 일터에서도 휴대전화가 일상이 되었다. 우스운 말로 "아내는 없어도 그만이지만, 휴대폰 없으면 정말 불편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WHO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의존증후군으로 정의하면서 인구 5명중 하나는 스마트폰 중독자라고 발표했다.[18]

미디어로 인해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 개인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나는 학생 시절부터 우표수집, 일정 메모, 신문이나 잡지에서 작은 삽화를 오려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사가 홍보물 제작회사여서 디자인팀이 주로 사용하는 상표나, 아이콘, 일러스트 이미지 등을 수집했다.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 때도 그런 삽화나 신문 스크랩들을 애용했었다. 파일이나 대학노트에 가득 붙여 미국에 유학을

18) 시사저널, "모디즈(Mobile Disease)- 모바일이 가져오는 7대 질병", 2019. 8. 6. 기사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는 뇌종양이다. 그 외 거북목, 안구건조증, 수면장애, 비만, 중독, 유령진동울림증후군 등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건강 문제로 꼽힌다고 했다.

갈 때도 이삿짐에 넣어가기도 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열어본 컴퓨터를 보고 놀라게 되었다. 그동안 엄청나게 모았다고 자랑했던 이미지들이 조그만 플로피 디스크 안에 색인까지 넣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내가 개인 컴퓨터를 처음 본 것은 80년대 초반, 제주도에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 의무장교의 책상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후로부터 10년이 못되어 한국 사회에도 개인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고, 퍼스널 컴퓨터의 출현은 세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말하자면, 미디어 빅뱅(Media Big Bang) 시대를 누리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의 발전과 맞물려 이제는 멀티미디어들이 활개를 치고 전 문화를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19] 무선, 광선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현대 사회는 전례 없는 네트워크 사회를 경험하기도 했다. 교회 역시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정보화 작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제는 모든 교회들의 사역에서 미디어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다.[20]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문화 변동이 정치나 경제, 교육, 사회는 물론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급변하는 것 중의 하나는 예배 문화일 것으로 보인다. 예배의 본질은 그대로 존재하나 앞으로 예배 양식이나 형식들은 바뀔 것이라는 데는 누구든지 동의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여기고 영상예배를 드리고,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신학적이고 예배학적 점검이 꼭 필요할 것이다.[21] '영상예배' 혹은 '영상설교'라는 용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게 된

19) 한국일보, "지리산 청학동, 첨단 '기가 창조마을'로 변신한다", 2015. 7. 6. 한때 지리산 높은 자락의 은둔마을인 청학동에도 스마트폰 앱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스마트팜'이 열린다고 한다.

20) 나는 미국 Ohio주, Ginghamsburg Church를 중심으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 교회는 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교회로 유명하다. 미디어를 사용한 영상예배에 관한 책을 담임목사와 미디어 팀에서 펴낸 것이 있다. Mike Slaughter, *Out on the Edge: A Wake-Up Call for Church Leaders on the Edge of the Media Reform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영상매체 활용이 신학적, 성경적 바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예배와 교육 갱신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22] 미래의 예배에는 뉴 미디어의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뉴 미디어를 예배에 사용하는데 신학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제한점은 무엇인가 고려해야 한다. 교회가 사회문화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영상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영상매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영상을 예배나 교육에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23] 확실한 성경적 기초와 역사적 검증, 그리고 현대 사람들의 심리와 사회의 문화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수 있는 영상매체를 활용한 예배와 교육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영상- 코로나 시대의 예배가 되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교회는 공식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되었다.

---

21) Thomas G. James, "The Theology of Social Media", *Lewis Center for Church Leadership of Wesley Theological Seminary*, (https://www.churchleadership.com), 2020. 7. 9. 검색; Justin Wise, *The Social Church: A Theology of Digital Communication* (Moody Publishers 2014); Walter J. Ong. "Communications Media and the State of Theology", CrossCurrents Vol. 19, No. 4(1969), 462-480. 참고.

22) 기독교연합신문, "영상예배의 신학·이론적 기초 '예배공학' 연구 필요", 2011. 12. 13.

23) 위의 글. "영상목회연구소 대표 김양중 박사는 최근 영상매체를 예배에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려면 '예배공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아무리 고도의 기술과 공학적 발전을 추구한다 해도 이러한 도구가 예배와 설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영상매체를 통해 예배와 설교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현 시대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예배공학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으로 전염이 되는데 그 전염력이 무척 높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급작스럽게 미디어를 통한 영상 예배를 제작하여 성도들에게 송출하게 되었는데, 매체에 대한 이해나 영상 미학에 관한 이해 없이 예배와 설교를 무분별하게 송출하였다. 그것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에 비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모처럼 영상을 활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잘 만들어 보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회에서 윤성민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는 방송 예배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시청자와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일단, 방송의 서론 부분을 일반 예배와는 다르게 시청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했다.[24] 교회의 내부 장식을 매체 미학적으로 촬영하여 설교 이외의 또 다른 신학적 의미로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5]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할 때에는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도 함께 사용해서 평신도들이 주중에도 성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6]

이제는 방송 예배와 유튜브를 통한 예배도 교회의 책임감 있는 공익성을 생각하면서 시청자와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가 이런 사태를 막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현장을 영상으로 짧게나마 보여줌으로써 비 기독교인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게 만들

24) 윤성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방법론: 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 중심으로,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2020), 67-94.

25) 하선규, “현대 영상매체와 공간적 경험에 관한 매체미학적 연구,” 「미학」 71(2012), 186.

26) 기독일보, “미디어 통한 예배, 교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대신 못해”, 2020. 6. 21.

어야 한다. 이웃을 돕는 영상은 미국 교회에서도 경험한 바 있었는데, 비신자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회중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하였다.

에른스트 랑게의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회중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또 다른 증언과 삶으로 사회 안에서 복음의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방송예배는 이런 소통이 일어날 때 완성된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한 예배는 교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대신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송 예배를 송출해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상 예배의 영향력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설교와 예배는 매우 급속도로 성도들의 교회당예배를 대체하고 있다. 멀티미디어가 가진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이용한 교회의 선교 사명, 특히 신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천신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0년을 전후로 디지털 문화시대인 컨버전스 교회들이 나타났다. 20대 이하 세대들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주역들이다. 이 디지털 세대들은 모바일, 쌍방향, 웹 2.0. 미디어2.0,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민장배 교수는 교회에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교회 소식과 예배 안내, 그리고 설교문과 영상을 게시하는 차원을 넘어선 세례교육과 새신자 교육, 그리고 사이버 강의(교리교육, 인물, 책별, 주제별 등)를 이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신앙에 유익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도전하는 것이 미디어 시대에 더 적합하다[27]고 말하였다.

27) 민장배, “미디어를 통한 신앙교육 활성화 방안,” 「신학과 실천」, 48(2016),

방송예배는 그 특성상 설교와 예배가 일반 지역 교회와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 만프레드 조슈티스(Manfred Josuttis)의 이론에 의하면 예배 혹은 예전이 있는 전통예배의 상징적 행동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28] 헬무트 쉬비어는 방송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많은 변화를 주면서 생동감 있게, 그리고 매우 실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방송예배에서 매체미학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헬무트 쉬비어는 방송 예배가 지역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냥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과 실천신학자, 예배학과 설교학, 설교실습과 방송국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 설교는 연역적으로 믿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더불어 방송 장면 하나하나에서 시청자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인식해야 한다.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 예배를 보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양한 장면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다. 인식의 개념은 내면에 가지는 느낌, 가치, 믿음, 신념, 의견, 선호, 태도, 이미지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시청자는 단순히 설교만을 인식하지 않는다. 방송 장면이 교회 내부를 비출 때에도 시청자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점에서 한국교회는 교회당의 건축이나 환경 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영상예배의 효과

현대인들에게는 기독교 방송채널보다는 오히려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매체가 더 익숙하다. 2019년 유튜브 사용자는 3,000만 명으로 추산

496.

28) 데오스앤로고스, “코로나19 상황 속 영상예배, 독일교회는 어떻게 드릴까?”, 2020. 6. 15.

되고 있으며,[29] 연간 수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는 이제 청소년이 선망하는 직업군이 되었다. 그만큼 유튜브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크다. 유튜브는 미디어 플랫폼(PC, 모바일 플랫폼, 스마트폰, IPTV)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검색 기능도 가능한 오늘날 뉴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초대형 플랫폼이다. 현대 노년층들 역시 유튜브에 푹 빠져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0]

변현진은 유튜브 채널 성장법칙을 말하면서 4가지를 들었다. 첫째, 나만의 색을 가진 콘텐츠 기획, 둘째, 간결하고 잘 전달되는 내용 편집, 셋째, 지속적인 운영 관리, 넷째, 소통으로 시청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31] 교회에서도 영상 예배를 제작할 때 유튜브의 이런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교회와 그 설교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콘텐츠 영상과 간결하면서 잘 전달되는 설교와 편집된 영상,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과의 소통하는 것이다. 단순히 예배와 설교만을 송출하면 유튜브에서는 그 효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에른스트 랑게의 복음의 커뮤니케이션(Kommunkation des Evangeliums)은 결국 회중과의 소통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본다.[32] 방송 예배와 설교도

29) 시사위크, “미디어 시장 장악’… 유튜브의 3가지 성공비결”, 2019. 12. 9. 기사에서 유튜브가 성공할 수 있었던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편리한 동영상 플랫폼, 둘째는 다양한 콘텐츠, 셋째는 이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수익구조 때문이라고 한다.

30) 매일경제, “요놈 없인 못 살아…어르신, 스마트폰에 빠지셨네요”, 2020. 1. 23. 노년들은 유튜브를 통해 시사 방송을 시청하고, 트로트를 동영상으로 감상한다. 기사에서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노년 세대가 주로 TV를 시청하는 데 시간을 보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를 보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31) 변현진, “유튜브 콘텐츠의 제작·이용 환경 특성과 인기 채널 분석”, 한국일러스아트학회, 「조형미디어학」, 제21권 4호(2018. 11), 238.

32) 윤성민, “미디어 통한 예배, 교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대신 못해”, 기독일보, 2020. 6. 21.

그 시대의 시청자와의 소통으로 완성된다. 이 소통은 기독교만의 소통이 아닌 비기독교인 신자와의 소통도 포함한다.[33]

대신 효과적으로 영상예배를 활용하려면, 예배 실황을 그대로 중계하여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1) 방송의 서론 부분을 강조하여 교회당 예배와는 달리 시청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2) 교회의 내부 장식을 매체미학을 활용하여 변경시키는 것이다. 설교 이외의 또 다른 신학적 의미를 미학적으로 시청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이다. 3)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에는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도 함께 사용해서 평신도들이 주중에도 성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4) 공중파 방송이나 유튜브도 교회의 책임감 있는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통도 생각해야 한다. 5)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가 이런 사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짧게나마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34]

영상예배와 친교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고통을 주었지만, 미래 산업이나 IT 기업들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재택근무로 차량 정체가 사라지고, 미세먼지가 줄었다. 출퇴근 시간을 자기계발이나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실 수업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선진국의 수업이 개발도상국까지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까지 발전시켰다.

---

33) 크리스티안 그레트라인, 『매체사회에서 나타난 복음의 커뮤니케이션』, 김상구 역, (CLC, 2008).

34) Kenny Lamm, “7 Uses for Video in Worship”, *RenewingWorship*, 2020. 7. 9. 검색.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김순환 교수는 2005년에 사이버 시대의 예배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이버 시대일지라도 '삶과의 관련성을 높이고,' '상호성을 확대해야 하고,' '회중의 참여도를 확대해야 하며,' '다양성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비물리적인 사이버 공간이지만 회중 간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하고 평신도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35]

방역적 관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력 감소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일에 비약물적 방법으로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 대신 심리적 부작용도 있다.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말이 생겼다.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외로움, 불안, 우울증, 신체활동과 경제적 위기 등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정신건강과 신체 활동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36]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대면 심방이 어려운 교회들이 전화로 심방하거나, 성도들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대면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대문 앞에서 안부를 묻고 기도하면서 심방한 교회들이 많았다. 이것 또한 성도간의 친교를 잊지 않으려는 배려이다.[37]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위기를 보내면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 예배 중계를 통해 주일성수를 했다는 대리만족을 가지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공동체성'이 결여된 혼자, 또는 가족들만의 예배였기에 친교나 인격적인 만남이 어려웠다.[38] 이점을 유의하여 교회는 영상 예배를 실시한다 해도 친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

35) 김순환, "사이버 시대의 대안예배" 복음과 실천신학, 제1권, 57-62.
36) 핼스경향,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코로나블루' 극복법. 2020. 4. 10.
37) 성결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공존하는 교회", 2020. 7. 7.
38) 윤성민, "미디어 통한 예배, 교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대신 못해", 기독일보, 2020. 6. 21.

영상예배- 테레사 베르거의 전망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에서 테레사 베르거(Teresa Berger)는 미래의 예배를 전망했다.[39] 저자의 서문에서처럼 디지털로 매개되는 예배 실행들, 공간적 은유로 말하면 '사이버 공간'으로 이주해간 예배 실행을 탐구한 연구서이다. 가톨릭 신자인 그녀는 컨퍼런스에 참가하려고 이동하던 중에 아끼던 기도서를 비행기에 두고 내렸다. 아끼던 기도서를 잃어버린 공허감 속에서 디지털로 매개되는 예배 실행의 세계 속으로 우연히 들어갔는데, 몇 년 동안 디지털로 넘쳐나는 일상이 확산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 후 팟캐스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기도를 실행하게 되었고, 오프라인 공동체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온라인 인터넷교회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소개한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께서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 공간에서처럼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려는 교회와 리더들은 한번 살펴보기를 권한다.

그녀는 미래를 전망하기를, 첫째로 미래에는 '증강 현실'을 통해 예배의 '레퍼토리'가 방대하게 확장될 것이다. 제한된 장소인 현장보다 영상은 예배 레퍼토리를 크게 확장해 줄 것이다.

둘째로 '연속성과 혁신'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인 비선형(non-linearity), 다매체성(multi-mediality), 단어와 이미지의 병존, 쌍방향성(interactivity), 텍스트 콜라보(textual collaboration) 등이 널리 사용될 것이다.

영상예배는 미래의 소통인 쌍방향 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공간보다 시간'이 중요해진다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다. 특정 지

39) 테레사 베르거,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 안선희 역, (CLC: 2020).

역과 상관없는 거룩한 장소들이 출현하고, 오프라인 예배당과 가상현실의 결합으로 '직접 참석하는 예배'보다 온라인을 통한 '예배의 동시성'이 우위를 점할 것이다. 같은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에 '접속'할 경우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고 인식되리라는 것이다.

넷째로 쌍방향적인 예배가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그동안의 단선적(linear) 실행들로부터 그물망식의 복합적이고(rhizomatic) 다감각적, 초텍스트적 경험을 통해, 예배는 계속 변화해 나갈 것이다. 즉 멀티미디어적인 경험을 통해, 즉각적, 쌍방향적이며 예배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다.

다섯째로 '열린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휴대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예배, 전 지구적인 기도와 찬송들이 전 세계에서 펼쳐질 수 있다. 테레사의 근본적인 성찰은 이것이다. 교회가 수행하는 예배 실행들의 궁극적 의미는 예배 너머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하나님과 신실한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영상 예배의 장점이 된다.

테레사의 통찰이 아니어도 현재는 디지털 세상이다. 소위, 연결의 세상인 것이다. 반면에 교회는 여전히 연결이 아니라 단절된 세상이다. 열린 세상에서 여전히 기독교는 닫힌 사상을 고수한다. 이렇게 되면 교회와 예배의 미래는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모든 교회는 열린 교회여야 하고, 모든 예배는 열린 예배여야 한다. 열린 예배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예배는 아니다. 예배 의식이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영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예배여야 열린 예배가 된다.

사회에서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를 말하기 시작했다. 교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상황이 일상이 될 전망이다.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당 예배를 정상화하자는 논의가 많지만, 아무리 교회가 강조한다해도

성도들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온라인 예배에 대한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고, 교인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확산 추세이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 온라인 예배는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코로나가 지속되는 여부에 따라 미래에는 웹 처치와 온라인 교회의 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 있다. 예배를 넘어 형태 자체가 온라인, 웹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 미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교회인 '라이프처치'가 탄생했고, 한국에서도 최근 아둘람공동체교회가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길어질수록 웹처치(webchurch), 온라인 교회 개척은 가속화될 것이고, 세상을 전혀 새로운 세계로, 교회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것이라고 전망한다.[40] 단순히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따져 영상을 송출한다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영상 예배는 교회의 주요한 예배 방법으로 호평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 속으로
다양한 표현의 예배
대상 15:25-29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처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을 때 범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매우 신중하게 일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신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40) 기독교연합신문, "웹처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매개체", 2020. 6. 2. 최근에는 만나교회를 중심으로 미디어교회(http://mediachurch.kr)도 생겼다.

즉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그들을 성결케 하고 법궤를 어깨에 메워 운반하게 한 것입니다(대상 15:14).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의 주도 아래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을 향해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들을 친히 도우셨습니다(대상 15:26).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바르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 웃사의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힘과 담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언약궤를 멘 자들을 도우시고 백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이 찬양합니다. 다윗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노래하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크게 찬양하며 제금을 치고 나팔을 불고 수금을 타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다윗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축하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인 미갈은 법궤 앞에서 기뻐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은 왕가의 위엄과 적절한 예법, 외양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왕은 천박하게 처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춤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형식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도록 다양하게 표현하는 몇 가지를 배웁니다.

1) **즐거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대상 15:25), 우리가 예배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

니다. 예배는 즐거움이 되어야합니다. 동시에 어깨에 메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메야하는 의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어렵지만, 여전히 예배는 즐겁게 드려야 마땅합니다.

2) **헌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과 숫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더라"(대상 15:26), 이들은 법궤를 그냥 메고 온 것이 아니라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들처럼,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는 헌신이 동반될 때 가장 좋은 예배가 됩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약해질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3) **찬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 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대상 15:28),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온 악기를 동원하여 예배합니다. 찬양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드리시기 바랍니다.

4) **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대상 15:29),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춤추고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큰 감격과 기쁨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런 다윗을 비난하고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드리든지 사람들 가운데는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영상예배를 드리다보면, 비난하는 사람이 꼭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미래 교회의 예배

3. 밀레니얼 세대의 예배

미래의 이끌어가는 주역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될 것이다. 이들은 기존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삶의 가치와 기준을 보이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에 익숙하다.[41] 그러면서도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평균 소득이 낮으며 대학 학자금 상환의 부담도 안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

김난도 교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8가지 키워드를 조합한 'WORKLIFE'로 소개했다.[42] 첫 번째 키워드는 'Welcome to Me World - '나' 중모드'이다. 커리어에서의 성공보다 본인의 일상과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라는

41) Nielsen Norman Group, “Millennials as Digital Natives: Myths and Realities”, 2016. 1. 3.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은 디지털로 자랐고, 미디어에 포로된 세대이기 때문이다.

42) Brand Brief, "밀레니얼 세대 대표하는 8가지 키워드는 WORKLIFE", 2019. 9. 30.

말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Open Blindness(오픈블라인드)'다. 오픈블라인드는 데스크테리어와 같이 개인 사무 공간은 자신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게 꾸미고 휴게 공간에서는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1인용 혹은 좁은 장소를 선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 번째 키워드로 'Realm of hyper-Efficiencies' - 초효율주의자'를 꼽았다. 김 교수는 "밀레니얼 세대는 안티 회의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회의를 위한 회의를 싫어하며, 답이 안나오는 회의를 지양해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절차보다 일의 해결을 중점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내 머릿속의 계산기(Keep Calculators in the Head)로, 회사와 본인 간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고 이해득실을 철저히 계산한다"며 "회사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려고 하거나 이직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키워드로 'Let's be Fair and Squrare(페어플레이어)'를 꼽았다. "밀레니얼 세대는 회사 내 위계 및 서열을 거부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추구한다"며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표현이 확실한 편으로 이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모든 업무 경험을 통해 승진보다 아웃풋이 명확한 경험 쌓기를 추구한다"며 'I'm the PD of my own - 프로듀스 A to Z'를 여섯 번째 키워드로 꼽았다. "밀레니얼 세대는 전문성에 대한 갈증이 있다"며 "승진보다 본인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꼽는다"고 말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업무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업무 공간을 추구하는 'Further Option Preferred - 다다(多多)옵션'이다. "일하는 방식, 일하는 장소 등 밀레니얼들은 자신에게 딱 맞는 공간을 찾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놓고 선택하고 있다"며 "사무실 공유 스타트업 위워크(WeWork)에서 사람들이 가장 탐내는 공간은 공용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의 일상을 데일리룩, 브이로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Exhibit your office - 오피스 스트리밍'을 트렌드로 꼽았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밀레니얼 세대는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우리 회사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많이 올린다"며 "사내 카페테리아, 휴식공간, 정원 등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개성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를 붙잡는 것은 미래세대의 블루칩이 되었다. 기업에서도 이미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43] 교회 역시 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교회가 밀레니얼 세대를 잃어버린다면, 다음세대를 포기하는 것이다.[44]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밀레니엘을 'Net Generation' 또는 '새로운 종족'이라 부른다. 이들의 등장은 기성세대와 갈등이나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45]

특히 여전히 경직된 위계문화가 주를 이루는 교회는 밀레니얼들에게 퇴행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세대 간의 인식과 갈등의 양상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기에 밀레니엄 세대들과 같은 개인주의와 포스트모던니즘이라는 새로운 조류를 옷 입은 세대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이념적인 기성교회들을 호감을 갖고 바라보지는 않는다.[46]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47]

---

43) 심혜경, 『밀레니얼에 집중하라』 (북스고, 2019). 163-165.

44) 기독신문, "교회, 밀레니얼 세대와 동행할 준비 됐나요", 2019. 12. 10. 기사에서 문화선교연구원은 2019년 대중문화 키워드를 '밀레니얼 세대' '뉴트로' '82년생 김지영'으로 정하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문화에 발 맞춰 가야할 한국교회 방향성을 제시했다.

45) Don Tapscott,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New York: McGraw Hill, 2009), 9.

46) 백광훈, "일과 여가의 분리세대, 밀레니얼의 등장과 교회의 과제" 목회와신학, 366호(2019. 12), 51.

미국에서는 이미 밀레니엘 세대들의 교회 이탈이 심각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기관 American Time Use Survey와 Pew Research는 교육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교회를 가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48]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 비해 종교 활동을 하는 시간을 급격하게 줄였다는 것이다. 퓨 리서치는 종교 활동 시간 감소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23~38세 젊은 층의 감소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세대에서 올해 기준으로 "1년에 교회에 가는 횟수가 2~3차례 미만이다"고 답한 이들은 3분의 2에 달했다. "교회에 가지 않거나 거의 가지 않는다"고 밝힌 이들은 10명 중 4명꼴이었다. 10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부정적 답변의 비율이 낮았다. '2~3차례 미만'은 50%, '거의 가지 않는다'는 30%였다. 워싱턴포스트는 밀레니얼 세대가 종교 활동을 줄이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도들의 이탈이 심하다고 보도했다.[49]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인구 사회학적으로 현대인들을 사일런트 세대(~1945년생)-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 -X세대(1965~1980년생)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 -Z세대(1997년생~)

47) 김도훈, “다음세대 신학: 사회변화와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와 신학의 과제”, 장신논단 39, 2010.12, 143-171. 논문에서 김도훈 교수는 다음세대를 위한 신학의 과제로, 일상의 신학”(everyday theology), 버츄얼 신학 혹은 버츄얼 교회론(virtual ecclesiology)의 확립을 과제로 내세웠다.

48) 글로벌이코노믹, “기독교의 나라 美 밀레니얼 세대, 교회 떠나면 돌아오지 않아”, 2019. 10. 29.

49) 위의 글.

로 구분한다.[50] 한국의 세대 분류는 조금 다르다.[51] 국내 베이비붐 세대는 6·25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마지막 주산 세대'이자 '컴맹 1세대'다. 그 뒤를 386세대(1961~1969년생)가 받았다. 이들은 19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대체로 토론에 강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다. X-세대는 1970~1980년에 태어난 이들이다. 경제적 풍요 속에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세대다. 워크맨을 들고 다니며 '서태지와 아이들'(1992년 데뷔)의 음악을 들었다. 대중문화의 꽃을 피운 세대로 통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다. 새로운 밀레니엄(2000년)을 맞아 대학에 들어갔다. X-세대의 다음 세대란 이유로 Y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Z세대는 X-세대의 자녀들이다. 2005년 출범한 유튜브와 함께 자라 '유튜브 세대'로도 불린다. 이들은 TV나 PC보다는 스마트폰을, 글보다는 이미지와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한다.

댄 쇼벨(Dan Schawbel)은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7가지로 나열했다. ① 에너지가 넘친다. ② 개인 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 ③ 현상 유지는 싫어한다. ④ 직업 선택권이 많다 : 열망 적합적 직업을 선택한다. ⑤ 신기술에 익숙하다. ⑥ 멀티태스킹에 능하다. ⑦ 겉모습보다 결과를 중시한다.[52]

이런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첫째,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매체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른다.[53]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

50) pewresearch.org/fact-tank/2019/01/17/where-millennials-end-and-generation-z-begins/ 2020. 7. 9. 검색.

51) 한국경제, "세대 분류 X세대…Z세대…복잡한 세대 분류 어떻게?", 2018.10.04

52) 댄 쇼벨, 『ME 2.0: 나만의 브랜드를 창조하라』, 윤동구, 박현준 역, (한스미디어, 2011).

53) 권예지 외 5명, "한국의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온라인 콘텐츠 이용, SNS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비부머세대, X세대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다.[54] 기존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고착되어 있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디지털 기지는 이들에게 있어 일상의 외의 부가 첨가적인 부분으로써 활용되어 왔다.

둘째, 적극적 정보와 탐색을 통해 소비한다.[55]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자들은 인터넷 미디어 매체가 접목되어 발전한 AISAS 모델의 소비 과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Attention(주의), Interest(관심), Search(검색), Action(행동), Share(공유)의 단계로 진행된다. 상품을 발견하면 상품의 광고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가적인 정보를 탐색하여 구매 행동 후에도 이에 대한 구매 경험을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서로 공유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혼자이기를 원하면서도 소통을 원하는 독립적인 세대로 자발적으로 '혼 라이프'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혼 라이프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는 특성에 비롯된 것으로 본다.[56] 이와 동시에 나타나는 모순적인 특성이 바로 타인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29-2호(2015. 3).

54) Pew Research center, "Millennials stand out for their technology use, but older generations also embrace digital life", 2019. 9. 9.

55) 밀레니얼 세대는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Pew Research, "Millennials are the most likely generation of Americans to use public libraries", 2017. 6. 21.

56) 혼 라이프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다. 1) 디지털 노마드-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하는 디지털 유목민(Nomad)를 뜻한다. 2) 스트리밍 라이프- 물 흐른다는 의미의 스트리밍(Streaming)과 라이프(Life)의 합성어로 음악, 영상 등 콘텐츠들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재생하는 것만으로 소유하지 않고 즐기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3) 미니멀 라이프-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 인간관계 까지 줄이며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4) 나홀로족의 '홀로 공간'- 혼자 활동하고 즐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나홀로족'은 요즘 욜로(YOLO)가 아닌 '홀로(홀YOLO - 욜로 + 혼자)' 공간을 찾고 있다.

넷째, 개성을 중시하며 익숙함보다는 비일상적인 새로운 모험소비를 추구한다. 익숙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자기표현에 적극적이고 남과 다르게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다.[57]

다섯째, 욜로를 실천하며, 동시에 가성비를 따지는 세대이다. 저축보다 소득의 상당비율을 문화생활이나 해외여행·식도락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과감히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소비는 아끼지 않는 다소 모순적인 소비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섯째, 소유보다는 경험과 공유를 중시한다.[58] 제품을 구매할 때 '경험'에 의존하며, 그 경험은 온라인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한다. 밀레니얼 세대를 요약하면, "디지털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혼 라이프를 추구하지만 그와 동시에 소통을 원하는 독립적인 세대이다. 또한 익숙함 보다는 비일상적인 새로운 모험소비를 추구하며 개인의 추구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자신만의 가성비를 따지며 소유보다는 공유를 중시하는 세대로 볼 수 있다".

밀레니엘 세대가 종교처럼 따르는 브랜드

주말 오후, 뉴욕 유명 쇼핑 지역인 소호(Soho)를 거닐다 보면 길게 늘어선 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0~30대의 여성들이 설레는 얼굴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줄을 선 곳은 맛집도, BTS 콘서트장도 아닌 화장품 브랜드 글로시에(Glossier) 매장이다. 미국 내에서 글로시에는 단순한 뷰티 브랜드 이상이다. 20~30대 여성들이 글로시에를 '종교

57) Lynne Lancaster & David Stillman, *The M-Factor: How the Millennial Generation Is Rocking the Workplace*, 양유신 역,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서울: 더숲, 2010). 12.

58) 현대모터스, "소유 대신 '공유'로, 밀레니얼-Z세대의 소비 밸런스", 2020. 2. 27.

처럼 추종(cult status)'하고, '광신적으로(fanatical)' 지지한다고 표현될 정도다.[59] 한 기사에서는 '애플 덕후'들이 매년 아이폰 런칭을 기다리듯, 뷰티 팬들도 글로시에의 모든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시에가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비결이 있다. 첫째는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 유지이다. 이들은 상품 컨셉, 컬러, 광고 그리고 쇼룸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에게 이미지 전달하는 모든 단계에서 글로시에(Glossie)의 브랜드 정체성 요소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둘째는 디지털 커뮤니티와 고객 피드백이다. 글로시에(Glossie)는 처음에 대표인 에밀리 와이스(Emily Weiss)가 시작한 뷰티 블로그 Into The Gloss(intothegloss.com)로 출발했기 때문에 커뮤니티와 고객들의 피드백을 매우 중시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들을 그들의 R&D이자 마케팅 플랫폼으로 삼았다. 고객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듣고 느낀다고 보았기 때문에 회사는 돌아가며 고객들의 모든 코멘트에 답하고 직접 메시지에 대응했다. 인스타그램 외에도 슬랙과 같은 도구를 적극 활용해 소통을 활성화 하고 있다.

셋째로 자발적 구전을 활성화하는 열렬한 브랜드 지지자들이다. Into The Gloss라는 뷰티 블로그와 글로시에(Glossie) 런칭 후 소비자간 상호 커뮤니이션을 통해 열렬한 지지자를 확보해 왔다. 글로시에(Glossi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트래픽의 70%는 개인 간의 구전에 의해서 발행한다고 한다.

넷째, 구전의 진원지로 효율적인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했다. 연구자들은 마케팅 관점에서 글로시에(Glossie)를 이야기할 때 가장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한 브랜드 중의 하나라는 평가가 많다. 제품 디자인 및 광고 등 모든 것을 고객들이 사진을 담게 만들고 이를 공유하고 싶게 기

59) Pamela N. Danziger, “5 Reasons That Glossier Is So Successful” *Forbes*, 2018. 11. 7. 포비스 잡지의 기고 글에서 저자는 1) 고객우선, 2) 매력적인 콘텐츠, 3)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대화, 4) 상품의 공동 제작, 5) 글레시어 사용자와의 진정한 커뮤니티 구축을 성공비결로 꼽았다.

획해서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한 공유가 일어나도록 한 것이다.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품 아이디어를 얻고, 상품 컨셉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상품 개발의 장으로 활용했다.

밀레니얼 세대에 접근하는 예배

송호근 교수는 2015년 '한국사회 키워드'라는 주제로 삼성에서 강연한 바 있다. 강연에서 우리사회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메가트렌드' 3가지와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메가트렌드로 '우리사회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타성'을 꼽았다. 이어 '구조적 저성장'을 두 번째 메가트렌드로 제시했다. 그는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나 국가로부터의 요구가 커지면 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저성장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교수의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마지막 메가트렌드로 꼽았다. "가격과 한계비용이 제로로 가서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사회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소셜커머스와 같이 인터넷과 IT로 연결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60]

송 교수의 메가트렌드 분석은 교회에도 적용된다. 밀레니얼을 타깃으로 하는 예배에는 타성을 버려야 한다. 구조적 저성장은 이미 교회에서도 보이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교회도 공유사회 모델을 찾아야 한다. 교회 인적, 물적 자산은 한계가 있는데,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 주변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공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60) 기독일보, "삼성 사장단, 새해 첫 회의는 우리사회 3대 메가트렌드", 2015. 1. 7.

한편, 미국 교회성장연구소의 톰 레이너(Thomas S. Rainer)는 밀레니얼의 관심을 끄는 예배 형식에 대해 다뤘다. 라이프웨이리서치를 통해 1,200명의 밀레니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밝힌 것이다.[61]

1) 이들은 내용이 풍부한 음악을 원한다. 깊은 성경적·신학적 진리를 반영하는 노래들을 바라는 것이다. 키스 앤 크리스틴 케티의 찬송가가 밀레니얼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의 음악은 깊고 풍부한 신학적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2) 밀레니얼은 예배에 있어서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회중과 예배 인도자가 언제 동작을 취할지도 알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형식적인 태도를 싫어한다.

3) 이러한 세대들은 예배의 질(quality)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은 앞서 언급한 진정성을 반영하며, 예배 인도자의 영성과 준비하는 시간 모두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질적인 예배는 모든 규모의 교회들에서 가능하다.

밀레니얼 세대는 절대로 '영적탕아'가 아니라 그들만의 '의미있는 삶'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세대이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관계성, 남들에게 인정받는 탁월함 보다는 보이지 않아도 진실함, 말만 앞세우는 논리보다 현장에서의 체험, 답이 뻔한 해답을 원하는 것이 아닌, 기독교 본래의 신비로움, 위계질서로 상하관계가 뚜렷한 획일성보다는 다양함, 어딘가 도착하는 목적지보다는 여정을 중요시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교회가 이들을 마음에 품는다면 단순하게 한두 가지 지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

61) 기독일보,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은?", 2014. 4. 8. 기사에서 레이너 박사는 "밀레니얼 기독교인들과 이 세대의 구도자들은 가르침과 설교가 최우선으로 이뤄지는 교회를 찾는다. 이들은 교인들에게 뿐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에 초점이 있는 교회에 매력을 느낀다. 내부적으로 초점을 맞춘 교회에서는 밀레니얼들을 많이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레니얼 예배를 위한 과제들

밀레니얼 세대와 예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우선 그들 세대와 소통을 위하여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예전의 방식으로 소통이 어렵고, 예배도 감동을 줄 수 없다.[62] 현재 교회의 지도자층을 특징짓는 모던니즘 문화로는 그들을 이해하기도, 그들을 끌어내기 힘들다. 밀레니얼은 이미 포스트모던적이기 때문이다. 레너드 스윗이 지적한대로 포스트모던문화가 경험적, 관계적, 이미지적, 참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적절한 예배 신학적 대안을 마련하여 젊은 세대들과의 접촉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카르페 마냐나(Carpe Mañana)", 즉 "미래를 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63]

둘째는 밀레니얼 세대 문화에 상응할 수 있는 기독교적 전통을 드러내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독교 전통 안에는 포스트모더니스트가 되지 않으면서도 포스트모더니즘과 대화할 수 있는 풍부한 전통들이 있다. 이것들을 되살려 젊은 세대들과 예배하는 것이다. 밀레니얼이라 해서 모두 유행을 따르는 집단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 예배가 밀레니얼들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64]

---

62) 최동규 교수는 포스트모던주의 문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목회의 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1) 창의적으로 접근된 영적 역동성, 2) 소통의 목회 커뮤니케이션, 3) 자발성과 참여의 원리, 4) 가족과 같은 친밀한 공동체 등이다. 밀레니얼들을 붙잡기 위해서도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최동규, "한국 포스트모던 문화의 도전과 교회성장의 과제", 제26회 현대복음주의 연구모임(2010. 4. 30).

63) 레너드 스윗, 『미래 크리스천』,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5), 23.

64) RealClear, "Millennials Need Time-Tested Traditional Churches", 2019. 6. 19.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이것이 밀레니얼 세대에 자주 적용되는 문구이다. 그들은 조직화된 종교를 거부하지만, 영적으로는 기울어져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최신 유행의 예배 스타일보다 오히려 주일 아침에 전통적으로 예배한 교회를 찾는다.

셋째는 디지털 문화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예배에 접목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몇 가지 예를 적었던 것처럼 다음세대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상황과의 대화와 접목이 필요하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문화와 상황이란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나 인터넷문화, 가상현실의 상황들을 수용하여 형성된 문화를 말한다.

넷째, 젊은 세대는 교리나 추상적 이야기보다는 삶과 실천에 관심을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학의 실천적 성격과 실천적 의미를 강조해야하며, 예배와 삶, 교회조직과 실천의 간격을 줄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설교에서 스토리텔링적 성격을 회복한다든지, 감성적, 오감적, 시적, 문화적 접근을 전개해 보는 것도 좋겠다. 미래교회의 예배는 대상들을 고려하며, 위기적 상황을 인식하고, 복음의 순수성이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다음세대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배와 예식들을 시도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자유, 신천지 이단집단, 교회를 향한 사회의 인식 등을 다시하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예배회복'이 큰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향후 미래의 교회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우리교회 강단에도 글을 붙여 놓았다. "Again, but Better 예배회복"이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밀레니얼들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저들을 되찾아야 한다. 가장 어려운 바로 지금이 신학과 신앙의 정점인 예배의 본질을 성찰할 때라고 본다. 주일성수의 개념이 약화되고 다음세대의 교육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현대교회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공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성경 속으로
다시 시작하는 예배
스 3:1-7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소홀하거나, 예배를 등한시하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교회들마다 예배가 어렵고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많지만, 실은 젊은 세대들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도 줄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젊은 층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애통해하며 걱정하는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보니 우리교회의 경우에도 50% 이상 성도들이 교회당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출석이 예전처럼 회복될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에스라서를 본문으로 '다시 시작하는 예배'를 주제로 골랐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히브리 단어로 '슈브'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예전보다 탁월해져야 합니다. 에스라서는 세 가지의 회복을 말합니다. 땅의 회복- 오랫동안의 바벨론에서의 유배 생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하나님의 선민 지위를 회복한 것, 영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은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그러나 더 좋은 예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주전 538년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해도 좋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 1:1-4; 6:3-5).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유대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여섯 달 남짓 거주한 후 재

건된 제단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일곱 달째에는 성전회복을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해 다시 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신앙중심이요, 예배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스 3:1). 그동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가족예배로 신앙을 유지했다면, 이제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인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예배는 모일 때부터 가능합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렸습니다(스 3:2).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포로 생활 후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본래의 방식대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단의 예식서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성경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기쁘게: 3-5절을 보면, 유대 백성들의 예배의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스 3:3). 최선을 다하는 모습니다. 매일 정수대로 드렸다고 했습니다(스 3:4),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쁘게 드렸다고 했습니다(스 3:5). 습관을 따라 드리는 제사도 귀합니다. 바르게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다는 구절에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도,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했습니다. 공예배로 모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지하교회, 가정교회로 모이는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 기쁘게 예배드림으로 다시 시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 교회의 예배

4. 이머징 예배

이머징(Emerging)이란 '나타나다'. '새롭게 출현하다'의 의미이다. 이것은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다. 20세기 말,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신세대들을 위한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를 이머징 교회(Emerging Church)라 부른다.[65] 이머징 교회는 모던 세상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전통적인 교회나 구도자중심 교회가 포스트모던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몸부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교파와 신학적 구분이 없이 전 진영에 나타난 현상이며, 지금도 계속되는 교회운동이기도 하다.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교회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

65) Scot McKnight 은 *Christianity Today*에 기고한 글에서 이머징 교회의 5개 흐름을 설명했다. 1) 예언적이고, 2) 포스트모던적이며, 3) 실천중심이며, 4) 복음주의적이다. 5) 정치적이다. *Christianity Today*. "Five Streams of the Emerging Church", 2007. 1. 19; 이머징 교회의 대표주자가 되는 교회들은 캘리포니아 주, 산타크루즈에 있는 빈티지 교회(Vintage Faith Church: http://www.vintagechurch.org), 미 서부의 LA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Mosaic Church: https://mosaic.org), 미시간 주 잭슨의 웨스트윈즈 교회(Westwinds Community Church: http://westwinds.org), 메릴랜드 주에 있는 시더 릿지 교회(Cedar Ridge Community Church: https://www.crcc.org) 등이 있다.

한 플랫폼으로 등장한 것이 이머징 교회운동(ECM)이다.

이머징 교회는 처음 소개되고 나타날 때는 새로운 교회운동의 형태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한국 기독교의 특성상 적용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가 있으며, 비판자들의 반발이 거센 탓에 크게 유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교회에서 시작한 이머징 예배((Emerging Worship)는 미래교회 한국교회 예배에도 한 트렌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언제든지 새로운 형태의 교회운동이 나타날 때 그랬듯 ECM 역시 찬반의 입장이 있다. 어떤 이는 ECM을 한국 교회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 줄 유력한 대안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이머징 교회 리더들의 신학과 영성을 비판하며 매우 경계하기도 한다. 물론 이머징 교회운동의 외적 형태를 한국 교회에 도식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있다. 그러나 이머징 예배가 오직 신비주의적 영성을 유포하고, 상대주의적이며, 종교 다원주의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새로운 교회운동으로 나타난 이머징 예배나 이머징 교회운동은 어쩌면 낡고 고리타분한 한국교회의 예배 형태에 신선한 바람을 주고, 교회를 쇄신시킬 수 있도록 도전하는 운동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66]

---

66) 2000년 중반, 서울신대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지도하면서 새로운 교회운동에 관한 책들을 소개한바가 있다. 그것은 브라이언 맥클라렌(Brian D. McLaren)의 『저 건너편의 교회』, 댄 킴벌(Dan Kimball)의 『그들이 꿈꾸는 교회』, 에디 깁스와 라이언 볼저(Eddie Gibbs & Ryan K. Bolger)의 『이머징교회』,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Michael Frost & Alan Hirsch)의 『새로운 교회가 온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의 『젊은 복음주의자를 말하다』 등이다. 당시 수강자들 모두 교회 갱신을 위한 좋은 책이라고 호평했었다. 물론 이머징 교회에 반대하는 책들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대표적인 책은 D. A. 카슨(D. A. Carson)의 『이머징교회 바로 알기』, 케빈 드영과 테드 클럭(Kevin DeYoung & Ted Kluck)의 『왜 우리는 이머징교회를 반대하는가』이다. 거기에 이머징 교회는 신비주의적이고, 교회 변질이라는 비판도 대두된 바 있다. R. Scott Smith, *Truth and the New Kind of Christian: The Emerging Effects of Postmodernism in the Church*(Wheaton, IL:

ECM의 핵심인물인 브라이언 맥클라렌은[67] "새로운 세계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의 신학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새로운 영이 아니라 새로운 영성이 필요하며, 새로운 그리스도가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새로운 교단이 아니라 모든 교단 내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68]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회와 교회 역시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형태보다는 이머징 형태의 교회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69] 그리고 이머징 예배가 미래 예배의 새로운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이머징 예배의 배경

프로스트와 허쉬는 말하기를 "복음과 상황은 떼려야 뗄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하나님은 문화를 넘어 계시지만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문화 속에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주장했다.[70] 따라서 복음을 이

Crossway Books, 2005). 참조. 복음주의자들과 이머징 교회 찬성주의자들의 논쟁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John Reader and Christopher R. Baker, *Evangelicalism and the Emerging Church: A Congregational Study of a Vineyard Church* (Burlington VT: Ashgate Publishing, 2009). 참고.

67) CBN, "The Emerging Church Explained", 2020. 7. 11. 검색.

68) 이머징 교회운동(ECM)을 주도하는 브라이언 맥클라렌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 배덕만, "복음주의 운동의 새로운 흐름, 이머징 처치(Emerging Church): 브라이언 맥클라렌(Brian McLaren)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종교와 문화, Vol.18(2010), 17-42.

69) 기독교뿐 아니라 가톨릭교회 역시 이머징 예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Christian Smith. Kyle Longest. Jonathan Hill. and Kari Christoffersen, *Young Catholic America: Emerging Adults In, Out of, and Gone from the Church*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70) Frost &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문화 속에 역동하는 21세기 선교적 교회를 위한 상상력』, 지성근 역, (서울: IVP, 2009). 163.

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깁스와 볼저 역시,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의 각각의 문화에 젖어들어야 한다.” 라고 했다.[71]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땅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머징 교회운동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를 주시해야 한다. 이머징 교회 운동은 서구의 포스트모던 시대를 기반으로 등장했다. 미국에서 포스트모던 시대로의 전환을 뚜렷이 의식하며 사회 전반에 진출한 첫 세대는 소위 X-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X-세대는 이전 세대의 사회,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과 욕구를 표방하게 되는데, 이는 포스트모더니티라는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이를 교회의 새로운 사역 방향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머징 교회 운동이다. 그리고 X-세대와 이머징 교회에 앞서 미국 문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와 구도자 교회 운동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 10년간, 혹은 20년 동안 교회의 주도 세력은 베이비부머 세대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자들을 말하며, 한국의 경우엔 6.25 전쟁 이후 탄생한 세대라 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 혁명과 인권, 히피 문화, 자유분방한 문화생활 등을 경험하고 자란 세대이며, 급속한 가정의 파괴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은 전통적 기독교의 형식적 예배에 지루함을 느끼고, 정통 신앙의 교리주의와 도덕주의에 반감을 안고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다. 한국에서 베이비부머들은 사회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베이비부머들이 가정을 이루고, 중년의 시기에 접어든 무렵 인간의 ‘영적 발달 주기’상 자연스럽게 인생에 대한 의문과 삶의

71) Eddie Gibbs & Ryan K. Bolger, 『이머징 교회』, 김도훈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08). 27.

의미에 대한 관심이 찾아오는 것이다. 노화의 진행으로 인해 인생의 운명을 고민해야 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자녀들의 문제, 사회적 성취 뒤에 남는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탐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중년으로 접어드는 1980년대 미국 사회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현상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도권의 기성 교회는 영적 대안이 아니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동양사상이나 뉴에이지 등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들 가운데서도, 좀 더 서구 중심의 보수적 문화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뉴에이지나 동양종교에 귀의하기란 불편하고 어색한 과정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이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던 신앙 운동이 구도자 중심교회의 예배였다.[72] 교회의 전통적인 의식과 교리중심적인 설교 보다는,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찬양과 간결한 예배 형식, 그리고 삶의 문제들과 직결된 메시지는 이들의 영적 여정에 대안으로 기독교를 제시하게끔 만든 것이다.[73]

하지만 지난 30여년 선풍적인 전성시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자 중심교회는 전통교회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전통적 교회들은 구도자 중심교회가 교회의 대형화와 물량화, 그리고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성장지상주의 교회성장학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성경의 원리"보다는 "효과가 있는 시장 원리와 방법"을 사용함으로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겼다는, 교회의 초점을 하

72) 베이비부머들이 전통적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자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새로운 교회 형태가 등장했는데, 바로 미국의 실용주의 정신을 기초로 한 구도자중심 교회이다. 구도자 중심교회의 전략은 한 마디로 교회를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치 백화점을 찾듯이 교회를 찾게 만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구도자 중심교회가 빌 하이벌스(Bill Hybels)의 윌로우크릭 교회(Willow Creek Church)와 릭 워렌(Rick Warren)의 새들백(Saddleback) 교회이다.

73) Dennis Bushkofsky, "Emerging and emerging worship", *Liturgy: Emerging Worship,* vol. 26.2 (2011), 3.

나님에게서 빼앗아 사람에 맞추었다는, 그리고 고객의 필요에만 민감하여 값싸게 기독교를 판매했다는 등의 비판이다.[74] 새로운 세대들은 구도자 중심 교회가 성도들 간의 온전한 교제를 어렵게 만들고, 진정한 영적인 요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궁극적으로 구도자 중심교회는 새로운 문화(포스트모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75]

X-세대, 또는 포스트모던 세대는 이전 베이비부머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경험, 문화적 감각을 갖춘 이들이었다. 이들은(1965년 이후 출생) 미국의 경제적 팽창이 서서히 흔들리는 시기에 성장했으며, 냉전기를 겪었다. 또한 그들 중 상당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들이 성혁명의 풍토 속에서 자유롭게 결혼과 이혼을 넘나드는 동안, 외롭고 표류하는 어린 시절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감을 안고 자라게 된다. 이러한 공통 경험은 수많은 X-세대에게 '불안'이라는 공통 코드를 각인시켜 주었고, 이는 그들의 삶을 위한 보다 견고한 준거 틀이 될 수 있는 공동체와 전통을 열망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베이비부머와 X-세대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지나면서 공통적인 교회구조를 찾고, 영적경험을 찾게 된다. 두 부류에게 어울리는 교회운동이 바로 이머징 교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어울리는 교회의 구조와 영적 경험이 꼭 이머징 운동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단순히 세대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만 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저들을 복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면서 이머징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76]

---

74) 존 맥아더(John MacArthur)는 구도자 중심교회를 비판하면서, "User-Friendly Church"라고 명하기도 했다. 6 John F. MacArthur,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81.

75) 베이비부머 이후의 세대, 소위말해 X-세대의 눈에는 구도자 중심교회가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X-세대들은 구도자 중심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했다.

에디 깁스의 이머징 예찬

이머징 교회에 대한 개괄적 소개서인 Emerging Church에서 에디 깁스와 라이언 볼저는 이머징 교회를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예수의 방식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현대는 과거와 아주 다른 새로운 세계로 본다.[77]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신 신약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전수된 복음의 기초들, 신학체계들을 낡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들 말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마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과 유사한 주장을 한다. 새로운 관점의 신학, 새로운 영성, 새로운 그리스도인,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머징 교회는 9가지의 실천들을 주장한다. 1)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기 2) 세속의 영역을 변화시키기 3) 고도의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기 4) 낯선 이들을 영접하기 5) 아낌없이 봉사하기 6) 생산자로 참여하기 7) 창조된 존재로서 창조해 나가기 8) 하나의 몸으로서 인도하기 9) 영성활동에 참여하기이다. 9가지의 실천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3가지가 따로 있다. 1)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하기 2) 세속의 영역을 변화시키기 3)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기이다.[78]

에디 깁스는 ECM이 몇 가지 미래 교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

---

76)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젊은 교회들을 통칭하여 이머징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시애틀에는 전통교회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부흥을 경험한 이머징 교회가 있다. Seattle's innovative Mars Hill Church인데 가장 부흥이 힘든 현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교회이다.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Mark Driscoll, *Confessions of a Reformission Rev.: Hard Lessons from an Emerging Missional Church*(Grand Rapids, MI: Zondervan, 2006) 참조.

77) Eddie Gibbs & Ryan K. Bolger, 『이머징 교회』, 35-36.

78) Eddie Gibbs & Ryan K. Bolger, 『이머징 교회』, 69.

한다. 첫째는 복음주의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사실상 복음주의적 배경을 안고 있는 이머징 교회 리더들은 기존 교회의 위계적 질서, 문화적 동질주의, 교리적 진영주의, 성경공부적 영성을 극복하려고 했다.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포스트모더니즘에 친화적인 성향을 보였다기보다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을 둘러싼 모던적 갑옷을 해체하려고 한 것이다.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는 취향 중심의 소그룹 보다는 다름을 관용하며 공유하는 공동체, 또한 한 몸 된 공동체를 지향하며, 몇 가지 핵심교리로 진영을 나누는 전투적 복음주의와는 달리 신앙의 정체성을 최대한의 공통분모에서 찾으려는 복음주의적 관용성을 더욱 앞세운다. 또한 신앙의 지평을 사회, 문화적 영역으로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통념적 신앙을 강화하는 지식과 정보 전달 위주의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지양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에 위치한 Solomon's Porch(https://www.sphk.org)는 요일별 영성 주제를 제시하며 삶의 형성을 추구하는 훈련을 하는데, 회중이 나눈 신앙의 도전과 문제는 지도목사(lead pastor)의 설교 주제로 다시 논의된다.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론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선교적(missional) 교회론, 사람들을 유인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 받음이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임을 재발견한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이 선교적 교회론의 주된 관심은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환대적 관심으로 나타난다. 교회 내부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동선이 중요한 교회의 선교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이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깊은 고민과 거룩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한 교회의 사명인 선교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세속의 영역은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는 중요한 공간이 된다. 한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고 대신 교인들에게 그 시간에 이웃을 위한 선교적 실천을 행

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 이머징 교회들의 진정한 고민은 교회됨(being the church)과 교회함(doing the church)의 문제였다.

세 번째는 고전적 영성의 회복이다. 수도원적 영성의 상징과 의식, 또한 교회의 전통적인 예전은 이머징 교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 체험적 예배 양식과 영성 표현이라는 창구로 이머징 교회의 이해가 독점되어서는 곤란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고전적 영성을 현대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것은 더욱 견고한 기독교적 유산에 신앙의 기반을 두려는 욕구와 전인적 영성경험에 대한 갈망에 기초한다. 이들의 예배에서는 침묵과 고요함, 느린 음악, 촛불 등이 자주 등장하며, 심지어 구도자교회들이 용도 폐기했던 스테인드글라스나 교독문, 고대의성가 등을 복원하기도 한다. 성경을 현대적 생활영어로 재번역한 'Message'성경으로 교독문을 구성한다. 또한 일렉트릭기타나 드럼과 같은 최첨단 악기들로 고전성가들을 리메이크하기도 한다.

딘 킴볼의 미래 예배

나는 2006년, 안식년으로 미국에 갔을 때 시카고의 무디신학교 서점에서 킴볼의 책[79]을 발견하고 눈에 확 끌려 사온 적이 있다. 처음 이머징 교회와 예배가 출현했을 때에 그것을 한시적인 유행으로 과소평가했던 적도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이머징 교회운동(ECM)이라는 점점 더 거센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내면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음을 본다. 주로 복음주의 진영의 보수주의자와 세대론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ECM은 그 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경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더욱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

79) Dan Kimball, *They Like Jesus But Not the Church*, 나중에 한글로 번역되어 나왔다. 『그들이 꿈꾸는 교회』, 차명호 역, (서울: 미션월드, 2008).

한 의존도가 더욱 크다. 따라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지도자의 설교, 강연, 책에 담긴 내용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80] ECM에 대한 시각은 우호적인 부분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현장에서 먼저 일어난 운동이라서 신학화 기반이 약한 것이 제일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받았으나 점차 내·외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오히려 '젊은 복음주의자(The Younger Evangelicals)'라고 이머징 교회 지도자를 부르고 있기도 하다.

산타크루즈의 빈티지 훼이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댄 킴볼(Dan Kimball)은 ECM의 중심인물이며 포스트모던 세대 즉 이머징 세대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여 본이 되는 모델로 성장시킨 사람이다. 그는 이머징 교회를 구도자 중심 그 다음의 접근(Post-Seeker-Sensitive Approach)라는 용어로 부른다.[81] 킴볼은 의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환경의 변화와 사역의 대상들이 가지는 특성을 변화를 따르다보니 새로운 대안으로 이머징 예배가 나왔다고 한다. 그는 80년대 말, 산타크루즈 바이블 교회(Santa Cruz Bible Church)에서 청소년 사역을 처음 맡았는데, 그 역시 당시의 유행에 따라 새들백이나 윌로우크릭의 접근 방식과 스타일을 배워 사역에 접목시켰다. 그러면서 사역 중에 깨달은 것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종교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을 사역에 적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새로운 분위기를 감지한다. 포스트모던이즘의 영향 속에 사고하며 살았던 청년들에게는 이전의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지금까지 영적이고 종교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애써왔는데, 오히려 현대의 아이들은 영적이고 종교

80) Crosswall.com, "Preaching In The Emerging Church: A Response To Dan Kimball", 2020. 7. 5. 검색.

81) Dan Kimball, Ivy Beckwith, Renee N. Altson, *The Emerging Church: Vintage Christianity for New Generation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4).

적인 요소에 열광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사고의 관점에서의 전환이 그를 새로운 교회로 이끌었고, 이머징 교회를 탄생하게 했다.[82] ECM 지도자들 중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으며, 교회론 재정립을 우선으로 한다.[83]

모자이크 예배

지금까지 이머징 교회운동과 이머징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머징 예배는 낯설고 서구 문화에서나 어울릴 전망이지, 우리 한국교회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모자이크 예배이다. 서로 각각의 생각과 주장이나 선호가 다르지만, 색들을 모아 훌륭한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모자이크처럼, 단편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구상하자는 것이다. 이머징 예배에서 모티브를 딴 모자이크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첫째는 유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킴볼은 *The Emerging Worship*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에 대안적 예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다. 이 예배의 대상은 신흥세대와 문화이다. 이것을 통해 청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킴볼은 구도자예배가 하나의 쇼나 공연처럼 되고 있다고 반성한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앞에서 이루어지는 쇼나 공연을 감상하고 구경하는 관객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가 제시한 것은 유기적 예배이다.[84] 유기적 예배는 정통 교회

82) George Fox University News, “Dan Kimball - If We Care About Social Justice, We Must Care About Evangelism”, 2020. 5. 7. 검색.

83) Dan Kimball, *The Emerging Church: Vintage Christianity for New Generation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3), 91-97. 참고.

들이 가진 예배의 틀이 없다. 틀에 매이지 않고 유기적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예배 모임은 찬양, 성경봉독, 간증과 침묵의 시간, 찬양과 설교, 영상, 침묵과 묵상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배 순서에 매이지 않고 자리를 떠나서 예배실 주변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기도문을 쓰기 위해 알맞은 장소를 찾아 각자 움직이기도 한다.[85] 좋은 예배의 특징 중 하나는 예배에 있어 사람의 주관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적다는 데 있다. 예배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예배의 참석자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예배는 인위적이고 형식적이 아니라 유기적이어야 한다.

둘째는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이다. 이머징 예배 특징은 다양한 시각적 미술품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품을 바라보는 중에도 자신들만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그들은 자유로움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현장에는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86] 한국교회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정형화된 예배를 배웠다. 예배를 드릴 때 뒤는 물론 옆 자리를 돌아보아도 안 된다고 배워왔다. 예배 시간에는 오직 정면만 응시하고 조용히 앉아 예배한다고 배운 것이다. 그러나 모자이크 예배는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수선한 분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

셋째는 자연스러운 기도이다. 이머징 교회는 곳곳에 설치된 기도 장소를 마련하고 이곳을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다양한 상징들과 창의적

84) 기독교타임즈, "현대인 구별된 거룩을 찾고 있다", 2020. 7. 6.
85) Dan Kimball, *The Emerging Church: Vintage Christianity for New Generations,* 111.
86) 위의 책, 129.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미지로 꾸며 놓는다. 교회에 오는 이들은 언제든지 기도 처소에서 기도를 할 수 있고 홀로 묵상을 하고 명상할 수 있다.[87] 이머징 스타일의 예배처럼 우리의 기도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 교회 예배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설교 중심의 예배일 것이다. 설교 지향주의 예배는 그동안 한국교회 예배에서 역동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었다. 젊은이들은 점점 예배에 흥미를 잃어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예배를 강론이나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점점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오히려 예배의 중요한 성경적 요소들인 찬양과 기도, 말씀과 성찬 등이 유기적으로 예배 속에서 녹아질 때, 예배는 보다 강력한 영적인 동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기도와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서로 다른 통로들이 더 많은 예배자들을 집중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감동을 주셨고, 기도로 더욱 깊이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결단할 수 있도록 하셨다.

넷째는 감각적 체험을 중시하는 예배이다. 이머징 교회는 감각적 체험을 강조하는데 이를 에픽(EPIC)이라고 한다. E는 체험(Experiential)이다. 둘째로 P는 참여(Participatory)이다. 셋째 I는 이미지(Image-Driven)이다. 넷째 C는 연결(Connected)이다. 이머징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형상을 매우 흔하게 사용한다. 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형상도 매우 흔하게 장식을 해 놓았다. 이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감각적 체험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이다. 모자이크 예배 역시 감각적 체험을 중시하되, 이교적 장식이나 예배 형태는 최대한 배제하고 시각적 장식보다

87) 위의 책, 114; 크리스천투데이, "이머징 예배, 인본주의인가 새로운 대안인가", 기사에서 미국에서 목회하며 『이머징 교회와 신비주의』(부흥과개혁사)를 번역한 황스데반 목사는 "현재 미국에 미치는 이머징 교회 운동의 영향은 대단하다"며 "복음주의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 이머징 교회 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는 기독교 음악을 배경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은 이머징 교회 운동의 중도 그룹에 위치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이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아성과 만족에 빠져 있으며,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화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는 진정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선교적 교회운동이라는 용어보다 '모자이크 교회운동'(MCM)을 사용하자고 강조한다. 이미 선교라는 단어가 전투적이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인상을 현대인들에게 주었기에 보다 순화된 언어로 모자이크를 권하고 싶다. 사실 어떤 단어를 고를지라도 한국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머징 교회운동이나 이머징 예배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개혁을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찬성하든 반대하든지, 미래교회는 일부 전통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머징 예배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성경 속으로
예배와 소리
막 1:9-11

예배에서 소리(음향)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큽니다. 작은 그룹의 예배에서는 느끼기 힘들지만, 큰 모임이나 주일예배와 같은 공간에서 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1) 예배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소리가 있습니다. 찬양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계 5:12). 2) 시작하는 종소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합니다. 3) 말씀을 전달할 때 소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

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전쟁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고전 14:8). 4) 현대에 와서는 영상음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앙적 유익을 위해 절제하면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고전 14:50). 처음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이들을 위해 긴박하게 기록되었던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도 많은 소리가 나옵니다.

-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막 1:3)

- 어디서 소리가 났습니까? (막 1:11)

- 주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소리를 하십니까? (막 1:15)

- 시몬과 안드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막 1:17)

- 더러운 귀신들린 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막 1:25)

- 더러운 귀신은 무슨 소리를 지릅니까? (막 1:26)

- 나병환자에게 외친 말씀은 무엇입니까? (막 1:41)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마가복음 1장에서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는 세례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습니다(막 1:3).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식적인 정결예식은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끗하여 오실 메시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회개

의 메시지, 주님 맞이할 영접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도들의 평안이나 안락, 행복만을 외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소개합니다(막 1:11).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고,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셋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시편 2:7, 이사야 42:1에 이미 예언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온통 세상의 소음이 쪄들어 있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른 소리라 해도 인간의 음성은 내 인생과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리가 나도 듣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성전에 누웠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어린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서툰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말하려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자기 말을 하려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로마서 10:17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5:24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교회의 예배

5. 스타벅스 스타일의 예배

사람들은 스타벅스(Starbucks)에 열광한다. 사람들은 Starbucks에서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새벽 6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88]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다. 왜 사람들은 영혼에 유익이 전혀 없는 Starbucks에 열광하고, 교회에는 무관심할까? 대체 Starbucks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Starbucks와 같이 열광하는 예배로 만들 수는 없을까? 다소 엉뚱하지만 그런 질문을 통해 '스타벅스 스타일의 예배'를 생각해 보았다.

미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1위의 커피숍이 Starbucks이다. Starbucks는 중독성 있는 커피를 만들어 팔고 있을까? 물론, 스타벅스는 카페인이 포함 된 커피를 판매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Starbucks 커피에는 맥도날드 또는 던킨 도넛이라는 가장 큰 커피 경쟁자에서 판매되는 커피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더 있지는 않는 듯하다. Starbucks는 더 나은 커피를 판매하지도 않으며, 정기적으로 맥도널드와 던킨 도넛 보다 블라인드 맛 테스트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고 때문도 아닌 듯싶다. Starbucks는 경쟁사에 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88) 동아일보, "스타벅스 서머레디백 뭐길래~! 웃돈 거래까지, 뜨거운 인기 왜?", 2020. 5. 25.

않는 듯싶다. 맥도널드처럼 TV에서 "I 'm lovin 'it"이라는 단어 옆에 Starbucks 인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더 좋은 커피, 더 강한 카페인 또는 더 나은 광고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Starbucks에 중독 하는가?[89]

89)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스타벅스에 관해 소개된 모든 책들을 구해 살펴보았다. Howard Schultz, Joanne Gordon, *Onward: How Starbucks Fought for Its Life without Losing Its Soul* (Rodale Books, 2011); Joseph Michelli, *The Starbucks Experience: 5 Principles for Turning Ordinary Into Extraordinary* (McGraw-Hill Education, 2006); Bryant Simon, *Everything but the Coffee: Learning about America from Starbuck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Starbucks, *The Ultimate Starbucks Coffee Recipe Book* (2015); Taylor Clark, *Starbucked: A Double Tall Tale of Caffeine, Commerce, and Culture* (Back Bay Books, 2008); Paul Copan, W*hen God Goes to Starbucks: A Guide to Everyday Apologetics* (Baker, 2008); John Simmons, *The Starbucks story: how the brand changed the world* (Marshall Cavendish, 2012); Joseph Michelli, *Leading the Starbucks Way: 5 Principles for Connecting with Your Customers, Your Products and Your People* (New York: McGraw-Hill Education, 2006); Howard Schultz, Dori Jones Yang, *Pour Your Heart Into It: How Starbucks Built a Company One Cup at a Time* (Hyperion, 1997); Michael Moe, *Finding the Next Starbucks: How to Identify and Invest in the Hot Stocks of Tomorrow* (Portfolio, 2007); Behar, Howard, Goldstein, Janet, *It's Not About the Coffee: Lessons on Putting People First from a Life at Starbucks*(Portfolio Trade, 2007); John Moore, *Tribal Knowledge: Business Wisdom Brewed from the Grounds of Starbucks Corporate Culture*(Kaplan Business, 2006); Michael Gates Gill, *How Starbucks Saved My Life* (Penguin Publishing Group, 2007); 김영한, 임희정,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 (넥서스books, 2003);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국제제자훈련원, 2009); 주홍식, 『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 하워드 슐츠가 감탄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1조 매출의 비밀』, (알에이치코리아, 2017); 유승호, 『스타벅스화 = Starbucksization : 스타벅스는 어떻게 낭만적 소비자들의 진지가 되었나』, (따비, 2019); 조셉 미첼리, 『스타벅스 웨이』 강유리 역, (현대지성, 2019).

교회가 스타벅스에서 배워야 할 10가지

교회와 경영은 당연히 다르다. 그러나 일치하는 영역도 많다. 교회를 사역하면서 경영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는 교회 운영은 몰라요, 오직 설교와 기도만해요"라는 목사를 만난 적도 있다. 그런 대범함이 부럽다기보다는 그래도 될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든다. 목사는 리더로 '교회 경영가'여야 한다.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경영을 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물론 교회는 기업과는 달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세상에서 배울 것은 취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최고경영자(CEO)여야 한다"는 말에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할 수도 있지만, 현대의 교회가 담임목사에게 어느 정도 CEO이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서적도 수십 권에 달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미래의 예배를 주목하면서 엉뚱하지만, 스타벅스 스타일의 예배를 생각해 본다. 특히 켄 하워드(Ken Howard)는 "Ten Things Churches Could Learn from Starbucks(Hint: It's not about making coffee)"라는 글에서 교회가 Starbucks로 부터 몇 가지 배워야 할 점을 나열했다.[90] 스타벅스 스타일에 관심 있다면 참고하면 좋다.

이유 # 1 : Starbucks의 미션은 "to inspire and nurture the human spirit – one person, one cup and one neighborhood at a time"이다. 인간이 자신에게 영감을 주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자 하는 것은 그저 커피 한잔을 사서 마시는 것보다 크다.
- 교회가 배우는 교훈과 질문: 교회가 활기차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비전과 사명도 그 제품보다 커야한다. 교회에서 만들어 내는 것은 무엇

90) Ken Howard, "Ten Things Churches Can Learn From Starbucks", *Vital Practices*, 2015. 3. 20. (2020. 7. 6. 검색).

인가(매주 일요일에 하는 일은)? 그것은 교회의 비전(기원하고 싶은 목표)과 사명(존재하는 이유)과 어떻게 다른가? 후자는 전자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큰가?

이유 # 2 : Starbucks는 개개인의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이들에게 제품의 하나의 크기가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Starbucks는 찾아오는 고객의 개개인에 집중한다. 그들은 시장에서 다른 부분 성향이 찾아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전과 미션이 초월적이고 혁신적 일 수 있지만 제품과 시장은 유한하고 집중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교회가 배우는 교훈과 질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교회의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은 그렇지 않다. 효과를 내려면 집중이 필요하다. 교회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교회 역시 찾아오는 성도 개개인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유 # 3 : Starbucks는 시장을 조사한다. 실제로 Starbucks는 많은 시장 조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식적으로 사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쉽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의식하지 않고 사려는 것)까지 조사하여 사업에 반영한다.
- 교회가 배우는 교훈과 질문: 교회는 목표 대상을 Starbucks와 같은 깊이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처음 방문 할 때의 필요를 알고, 그들 속의 깊은 요구까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인들처럼 까다로운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

이유 # 4 : Starbucks는 고객의 요구와 요구를 중심으로 전체 비즈니스를 설계했다. Starbucks의 CEO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 “고객이 원하

는 것을 밝혀주면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라고 말한다. Starbucks 고객은 커피를 원하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지만, Starbucks가 단순히 제공하는 것 이상 더 깊은 요구를 충족했기 때문에 머무르는 것이다.
- 교회가 배우는 교훈과 질문: 사람들은 위대한 예배를 위해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서로의 깊은 연대감을 주는 위대한 공동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들은 머무를 수 없으며,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이 균형을 잡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유 # 5 : Starbucks 매장은 의도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Starbucks를 방문할 때 느끼는 모든 감각을 생각해보라. 물론 매장 안에는 짙게 볶은 커피콩의 향기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Starbucks가 대부분의 다른 커피숍보다 콩을 볶아서 개별적인 느낌인 커피의 맛을 향상시키지 않고, 문을 열 때 냄새가 나는 방식을 공유하는 경험이라고 응답한다. 그런 다음 매끈한 재즈가 뒷마당에서 연주되고, 바리스타가 커피 추출액을 모으기 위해 움직이고, "당신은 Starbucks에 있습니다."라는 시각적 분위기가 있다. 사람들이 등장하거나, 놀거나, 채팅하거나, 랩탑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경험은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Starbucks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 교회가 배우는 교훈과 질문: 교회는 사람들이 방문할 때 경험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의도를 두어야함에도 대부분의 교회는 우연히 경험하도록 남겨둔다.

이유 # 6 : Starbucks 매장은 모임공간을 제공한다. Starbucks는 커피숍 일뿐만 아니라 "인근 모임장소" 제공하는 것과 "일상의 일부"를 목표로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3의 공간"으로서 기능

을 Starbucks에서 경험한다. 많은 다른 의견의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고, 친구를 사귀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통적인 장소. 어떤 사람들은 Starbucks를 "21세기 교회"[91]라고 말한다.
- 교회가 배우는 교훈과 질문: 교회는 이웃의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에 모이는 "세 번째 공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제는 종종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지역 사회와 떨어져 있다. 당신의 교회와 그 이웃의 관계는 무엇인가?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가?

이유 # 7 : Starbucks 매장은 환영하는 공동체 의식을 제공한다. Starbucks에 입장했을 때 몇몇 직원이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 보았는가? 그들은 실제로 당신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을 맞이할 때의 미소는 거의 항상 실제인 것 같아 보인다. 그들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임무가 무엇이든, 그들의 직업이 자기의 소명이라면, 당신을 작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직업에 행복해 보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친구로 취급한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를 당신은 그들을 도울 수 없지만 그들을 좋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최고보다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괜찮은 커피 한 잔을 원한다.
- 교회가 배우는 교훈과 질문: 교회가 항상 최선을 다하거나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교회는 처음부터 환영하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교회의 직원들은 환대에 대해 훈련을 받았는가? 영접하는 이들이 교회 문을 열어주거나 방문자를 기다리는가? 그들은 스스로를 소개하고 방문자의 이름을 묻는가?

---

91)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국제제자훈련원, 2009); 릭 리처드슨,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노종문 역, (IVP, 2013).

이유 # 8 : Starbucks 매장은 친숙성과 일관성을 제공한다. 각 Starbucks 매장은 레이아웃이 약간 다르지만 분위기는 매장마다 현저하게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기 때문에 편안하고 “집에서처럼” 느끼게 된다. 일부 제품은 계절에 따라 바뀌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핵심요소가 있다. Starbucks에서 고객들은 항상 "Pike's Place"(최고의 장소)를 얻을 수 있다.
- 교회가 배우는 교훈과 질문: 참석자들을 위한 경험을 만들 때, 교회는 다양성을 위해 달라질 수 있는 경험의 일부와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핵심 경험 사이에서 유사한 균형을 찾아야한다. 교회의 경험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유 # 9 : Starbucks는 의식과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Starbucks 매장에서 이를 제공한다. Starbucks만의 전례를 가지고 있다 : 당신은 환영을 받고, 주문대에서 줄을 서고, 한 사람이 주문을 받아 당신의 컵에 쓰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고, 계산대에서 그것을 갖고 나온다. Starbucks에는 특별한 전례 언어가 있다.
- 교회가 배우는 교훈과 질문: 교회 역시 전례의식이 있다. 그러나 교회의 예식이 때로는 그란데(Grande), 벤티(Venti), 트란타(Trenta) 보다 더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Starbucks가 커피 한 잔을 의미 있는 예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회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더 많은 부분으로 예배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신의 교회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어떤 새로운 의례와 의식을 발전시켰는가?

이유 # 10 : Starbucks 매장은 무언가 달성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실제로 Starbucks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트북으로 숙제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서신을 따라 잡는 방법을 알아 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마치기 위해 Starbucks에 간다.

- 교회가 배우는 교훈과 질문: 나는 가끔씩 교회 사무실에 갇히거나 산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종종 Starbucks에 가서 일을 했다. 어떻게든 창조적인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더 창의적으로 느끼게 된다. 어떤 사역자들은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 Starbucks에서 일한다. Starbucks처럼 교회를 목적을 달성하는 장소로 만들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교회보다 스타벅스를 더 좋아하는가?[92]

뼈아픈 질문이지만, 왜 현대인들은 교회보다 스타벅스를 더 좋아할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꼽은 이유 중에 넘버원은 커피 그 자체이다. 사람들이 커피숍에 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 맛이다.[93] 물론 스타벅스에는 스페셜티(Starbucks Popular Specialty Drinks)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커피에 주력한다. 스타벅스에

92) 이 소제목은 아래 사이트에서 인용했다. Tony Morgan, "Why People Like Starbucks More Than Your Church", 2015, 11. 18. (2020. 7. 8. 검색).

93) 실은 한국에서 커피맛을 비교하여 설문한 결과는 스타벅스가 4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바로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의 증가이다. 스타벅스의 '리저브 매장'은 최고의 커피마스터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커피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일보, "스타벅스 커피 맛, 전문가들 평가는", 2019. 12. 22. 그럼에도 스타벅스는 커피 맛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커피 외의 요인으로 소비자들을 끌고 있다. 「소비자평가」, "비싸도 사먹게 되는 스타벅스의 4가지 전략- 커피 브랜드 포화시대, 스타벅스의 성공전략", 2016. 12. 18. 여기서 4가지 전략은, 1) 브랜드 전략, 2) 제품전략, 3) 입점전략, 4) 굿즈 전략이다. 이 밖에도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SNS를 통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의 공유도 스타벅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서 즐기는 커피 맛은 세계 어느 곳이나 똑같은 맛을 내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것은 최고의 아라비카산 원두를 스타벅스 로스트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볶아내어 각국의 스타벅스 체인점에 항공 배달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건물이나, 편리한 위치, 주차장, 자녀교육, 유명세 등이 있겠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가 좋아야 한다. 예배의 감격이 살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바른 복음 선포로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고, 찬양과 기도가 활발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예배가 좋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의 중요성은 더 뚜렷해졌다. 이제는 찾아와 예배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배가 좋아야 성도들이 찾는다.

둘째는 문화 마케팅이다. 20세기가 정보, 기술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일컬을 만하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 문화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문화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산업으로 중요하지만, 다른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의 발전으로 정보기술의 보편화, 브랜드 패권화, 커뮤니케이션의 보편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마케팅은 효과가 줄어들고,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 나오게 되었다. 특히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고 강조함으로 구매를 요구하는 문화 마케팅이 다양한 산업에서 시도되고 있다.[94] 많은 연구에서 스타벅스의 성공 요인으로 스타벅스 스타일의 분위기를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화(harmony)와 대조(contrast)가 절묘하게 교

94) 변광인, 오지현, "커피전문점 이용객의 지각된 문화마케팅전략이 브랜드 태도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제30권 1호(2014), 170.

차하는 스타벅스 특유의 일관성 있는 스타일을,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다.[95]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의 문화를 즐기려 찾아간다.[96]

교회역시 예배에서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했다. 현대인들과 동떨어진 예배의 문화를 계속 고집한다면 미래의 교회 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안덕원 교수가 『목회와 신학』에 소개한 한국 교회의 예배는 보통 4가지로 분류된다. 블랜디드(blended)예배, 하나의 교회, 다양한 형식, 전통과 현대의 조화, 서구의 예전과 한국적 전통의 조우라고 했다.[97]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제안했다. 1) 예배의 불변적 요소와 가변적 요소, 혹은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2) 많은 교회들이 나름의 예배 신학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대개 예배의 언어가 감성적 측면에서만 이해되는 것은 아쉽다. 바람직한 예배 언어는 지성적 언어, 감성적 언어, 윤리적 언어가 적절하게 섞인 방식이다. 3) 형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4) 모방과 답습을 넘어 신학이 있는 창조적 예배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 천편일률적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하겠지만, '창조성 결여'는 분명 느껴진다. 5) 비언어적 소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적용이 필요하다. 6) 예배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통찰은 매우 적합하다. 오늘의 교회들이 예배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는 제품의 고급화, 까다로운 품질 관리이다. 실은 한국 사회에서

---

95) 김훈철, 김선식, 『카테고리를 디자인하라』, (다산북스, 2014), 84.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는 시애틀의 작은 커피회사에서 일할 때,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그곳의 카페 분위기를 주의 깊게 살폈다. 스타벅스는 카페에 머무르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이탈리아의 전통문화를 미국으로 옮겨와 정착시켰다.

96) 동아일보, "국내진출 20년… 스타벅스가 바꾼 한국 커피문화", 2019. 7. 13.

97) 기독일보,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평가와 10가지 제언", 2019. 6. 10. 여기서 '톺아보기'란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핀다는 의미다.

는 80년대 후반에만 해도 커피는 값싼 기호음료에 불과했고,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향과 질이 무시된 값싼 커피를 판매하였다. 미국인들도 진한 커피가 아니라 농도가 약한 아메리칸 커피를 즐겨 마셨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소수라 할지라도, 진정한 커피 애호가들이 마시는 고급 커피를 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까다로운 원두를 선택하고, 당일 로스팅으로 신선한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 기준을 지키며, 커피 맛를 좌우하는 물까지도 특수 여과장치로 3번 걸러 사용한다는 등의 원칙을 고수하여 성공한 것이다. 그들은 세상 어디의 매장에 가도 제품의 질은 동일하다는 메시지를 커피 컵에 녹색 선을 그어 보여주었다,[98]

교회는 스타벅스 못지않게 예배를 고민해야 한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고마울 지경이다. 그러나 '예배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다. 특히 회중의 '예배 수준은 교회 건강도의 척도'이기도 하다. 교회의 최고 사명은 '사역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에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 시대에는 예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여전히 예전과 동일한 형태의 예배로 만족한다면 미래에는 분명 청중의 마음이 떠날 것이다.[99] 마치 스타벅스와 같이 까다로울 정도로 준비와 점검이 있어야 한다.

넷째는 제3의 공간 제공이다. 커피 전문점이 매년 늘어나는 데도 스타벅스에 하루 평균 50만 명씩 손님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100] 스타벅스가 국내 최초로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아예 스타벅스 커피에서 스타벅스로 간판을 바꿨다. 이것은 커피 이외에 '제3의 공간'으로서의 경영철학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다.[101]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창업주

98) 김영한, 임희정,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 66.
99) 최종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공존하는 교회", 성결신문, 2020. 7. 7.
100) 조선비즈, "시끄럽지만 공부 잘되는 '공간'의 비밀", 2019. 1. 3.

도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로 "커피와 함께 경험과 공간을 파는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102] 스타벅스는 매장의 의자, 테이블, 조명, 향, 음악 등을 신경 써서 배치한다. 따뜻한 느낌의 목재 가구, 은은한 조명, 잔잔한 배경음악 등은 스타벅스를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연출하기 위한 공간 마케팅의 일환이다.

교회는 어떤가? 처음부터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였다. 주님은 교회를 교제하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또한 소통하고 관계 맺는 것을 환영하셨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치유하셨다. 교회에서의 교제는 공동체성을 키우게 된다. 예배 역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중요한 예식이다.[103]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당 인테리어나 강단장식, 주차장, 교육 공간들을 들여다보면 답답해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청년층들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되, 소모임들은 동네 카페에서 모인다.

예장통합의 담임목사 11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코로나 이후 목회로 중점 사항으로 1) 성도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2) 설교, 3) 예식과 모이는 예배, 4) 교회 공공성 등으로 꼽았다.[104] 온라인 예배 및 온라인 성경공부를 강화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스타벅스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는 장소로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

101) 한국경제, “스타벅스 간판에서 '커피'가 사라졌다”. 2019. 3. 5.
102) 동아일보, “스타벅스 커피… 문화공간으로 진화”, 2017. 9. 8.
103) 최종인, 『The Table』, (서울: 생명의우물가, 2019), 77-85.
104) 국민일보, “코로나 이후 목회 중심은 ‘현장 예배와 교제 회복”, 2020. 6. 17.

성경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사 6:1-5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만남"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타락한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찾아봅니다.

-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1절)

- 스랍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

- 성전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

-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5절)

성전에 올라갈 때: 어느 날,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습니다. 웃시야가 죽던 해라고 명시함으로 주전 740년경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사 6:1).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자인 이사야가 성전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역시 당연하고 늘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성전에 올라갈 때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며 구

걸하던 사람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행 3:1).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성전에서 봉사할 때 천사를 만나 아들을 주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눅 1:13). 우리는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기대를 하고 갑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때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위에 앉으셨습니다(사 6:1). 이사야는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어 소개합니다. 상징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보좌, 옷자락, 스랍들, 노래, 터가 요동함, 연기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사야 자신이 본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구약 시대에 계시 전달의 방편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사야처럼 성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카페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자유로운 상황에서 교회당에 오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영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 12:5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화로다 나여: 이사야가 성전에서 찾은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외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소명을 거절하지 않습니까?(출 4:1).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삿 6:15). 세상은 우리를 완벽하다, 매우 능력 있다고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서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전에 갈 때 하나님 만나고, 죄를 발견하고, 사명을 찾아 일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미래 교회의 예배

6. 인공지능(AI)이 설교하는 예배

미래는 인공지능이 지배할지 모른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언론사·도박사들 모두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은 달랐다. 인도 벤처기업 제닉AI가 개발한 AI '모그IA'는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예견했다. 모그IA의 예상은 적중했다. 또한 2016년 3월 서울에서 펼쳐진 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다. 구글 딥마인드가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AI 알파고는 다섯 차례의 대국에서 4승 1패로 이세돌 9단을 꺾었다. 최고의 바둑 AI 프로그램과 최고의 인간 바둑 실력자의 첫 대결에서 AI가 이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전문가들은 로봇·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AI 시대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인류의 무기력한 모습에 경종을 울린다. 동시에 이처럼 AI가 침투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AI를 파트너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공지능은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으로, 공학윤리, 기독교윤리, 예배의 설교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105] 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105) 문화일보, "AI가 설교하는 시대 올까… 종교의 근원적 고민이 시작됐다",

인공지능(AI)이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회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바른 대처를 위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은 누구나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쉽게 접하지만 그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용어는 1955년에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존 메카시(John McCarthy)가 '지능을 가진 기계들을 만드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진다.[106]

외신이나 과학 잡지에서 읽던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 충격적으로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에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의 활약일 것이다.[107] 사람들은 컴퓨터와 인간이 바둑대결을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는 인간이 앞서지 않을까 막연하게 예상했으나 결과는 기계의 승리였다.[108] 뉴스에서도 인공지능의 확산이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과 변화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 특집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이 결국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비관적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인간과 인간지능

2018. 5. 9. 기사에서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를 소개하면서, "양동욱 장신대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이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통해 인간 설교자보다 더 완벽하게 회중의 필요도를 측정하고 세계에 산재된 온갖 종류의 설교를 모두 취합해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설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간 설교자보다 뛰어난 '설교 봇'의 등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의 '설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교류를 통한 존재적 만남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는, 내장된 정보의 유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06) ai타임스, "특집, AI역사의 시작" 2019. 9. 19.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 자체가 맥카시가 회의 도중 처음 만들었다. 맥카시는 컨퍼런스가 있었던 기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작업 중, Newell, Shaw 및 Simon의 정보 처리 언어(IPL) 및 논리 이론 기계에 관한 연구를 강조했다."

107) IT 동아, "알파고: 진화의 시작, 알파고는 '누구'인가?" 2016. 3. 10.

108) 알파고는 이세돌 기사와의 다섯 번의 대국 가운데 한번을 지고 네 번 승리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패배도 일부러 져 준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앙일보, "알파고, 이세돌에게 일부러 한 판 져줬을 것" 2017. 1. 12.

로봇의 협업에 의해 보다 나은 세상으로 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 AI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AI가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AI는 그동안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전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예상되고 예측된 결과일 뿐이다. 단지 그 등장하는 속도가 인간의 예측보다 급격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생활에 갑자기 훅 나타난 것과 같이 느껴진다.[109]

20세기의 테크놀로지는 NBC, 즉 핵(Nuclear), 생물(Biological), 화학(Chemical) 공학이라는 세 가지 테크놀로지로 대표된다.[110] 이 세 가지 테크놀로지를 주축으로 20세기 과학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컴퓨터학자 빌 조이(Bill Joy)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첨단 테크놀로지가 더 이상 NBC가 아닌 GNR, 즉 유전학(Genetics), 나노기술(Nanotechnology), 로봇공학(Robotics)이라고 단언했다.[111] 거기에 2002년 미국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보고서는 GNR에 추가하여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도 21세기의 대표적인 첨단 테크놀로지로 포함시켰다.[112] 여기서 정보기술 최첨단이며 초고도로 집약된 기술체가 AI인 것이다.

'알파고 쇼크'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

109) 김동윤. 배상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학제적 연구",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4권 제3호(2019. 5).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인공지능의 탄생과 부상의 배경을 잘 요약하고 있다.

110) 최경희. 송성수. 이향연, "공학윤리의 확장: 나노윤리의 모색",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4, No. 4(2011), 39~47.

111) Bill Joy, "Why the Future Doesn't Need Us" *Wired*, 2000. 4. 1. 기사에서 빌 조이는 "The 21st-century technologies—genetics, nanotechnology, and robotics (GNR)—are so powerful that they can spawn whole new classes of accidents and abuses."라고 했다.

112) 교갱뉴스, "AI(인공지능) 시대의 목회 윤리" 2016. 8. 23.

능(AI)·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으로 대표되는 최첨단 기술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파고들었다.[113] 이 같은 흐름에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배나 선교와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과학 기술은 양날의 검이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교회는 과학 기술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놀라운 인공지능

AI는 위의 첨단 테크놀로지들의 총체이자, 실체이자, 그 지향하는 최종 목표이다. 특별히 위에 언급된 테크놀로지들 중 인터넷 기술을 포함하는 정보기술(IT)과 뇌 과학 혹은 신경과학(Neuroscience)을 포함하는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은 주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알파고와 같은 AI를 창출해내는 선두 주자들이라 할 수 있다. 알파고는 모든 최신 전자 장치들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에 기반을 두어,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빅데이터(big date)를 자산으로 삼아, 인간의 사고 유형과 유사한 학습 방식을 따르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컴퓨터에게 부과함으로써 주어진 문제 또는 상황에 대하여 컴퓨터 스스로가 답이나 결론을 도출해내도록 하는, 정보기술과 인지과학과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들이 만들어낸 AI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113) 숭실대학교는 가상현실(VR)을 이용하여 '평양숭실캠퍼스'를 만들어 체험존을 마련했다. 어린이 사역단체 히즈쇼는 증강현실(AR)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만들기도 했다. 서산성결교회도 VR을 이용하여 'VR 교회탐방'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연합신문, "우리 목사님은 인공지능(AI)"…4차 산업혁명시대 교회가 설 자리는?" 2018. 5. 21.

21세기에 들어서면서 AI 프로젝트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그 목표에 비추어 볼 때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이를 이끌어온 첨단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AI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최종 목표를 단순히 '인간처럼'만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 이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목표를 설정한 이상 지금까지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이지만, 머지않아 그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다.

해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 쇼인 CES의 주최측인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기술 트렌드 2020´ 보고서를 보면 1) 사물 인터넷에 인공지능이 부착된 '사물지능'시대가 온다. 2) 기업용 솔루션, 의료, 농업에 5G가 활용되기 시작한다. 3) 소비자 속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온다. 4) 스트리밍 전쟁이 시작된다. 5) 향후 10년은 전기 차의 시대이다. 6) 디지털 헬스 케어는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 7) 나와 교감하는 로봇과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등장한다고 했다.[114] 여기서 트렌드 7가지 가운데 4가지가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AI와 기독교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미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믿고 연구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남아있다. 첫째는 안정성에 대한 쟁점이다.[115] 지금까지 보아왔듯 AI의 놀라운 학습 습득능력은 인간의 한

114) 매일경제, "집안 모든 기기에 인공지능 장착…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 2020. 1. 6.

115)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완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가라는 소리를 듣는 미국 전기 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도 같은 주장이다. 그는

계를 뛰어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약한 AI라 할지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116] 둘째는 인간 윤리에 미치는 영향이다.[117] 현재도 자율자동차의 사고의 주체를 누구로 잡을 것인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윤리적 문제에 노출될 때 그때 가서 AI의 계발이나 사용을 후회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쟁점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문제이다.[118] 나노 기술과 융합을 바탕으로 AI로봇은 어디든지 갈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활동가능하다. 네 번째는 기술격차, 정보격차, 경제격차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119]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의 논의의 초점은 AI에게 감성, 창조성, 예술성이 가능한가를 넘어서서, 이를 결국 모두 이루어낸 AI가 과연 자유의지나 양심이나 도덕성까지도 지닐 수 있는가로 상향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 또한 지니게 된다면 AI에 대한 윤리적 담론까지도 형성되어야할 것이다. 특별히 첨단 테크놀로지들의 총체라 할 수 있는 AI 프로젝트를 사변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트랜스휴머니즘을 제시하는 미래학자들이 감당하고 있기에, 갈수록 부각되어가는 그러한 담론의 형성을, 그 내용 속에서 실제로 도전받고 있는 기독교 신학이 넋 놓고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120] 인간처럼 되려는 AI 프로젝트가 인간을 넘어서려하는 것처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핵무기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의 개발을 '악마를 소환하는 행위'에 비유한다. 한겨레, "인공지능의 두 얼굴, 구원일까 위협일까" 2016. 9. 12.

116) 삼성SDS, "강한 인공지능 VS 약한 인공지능", 2017. 8. 3.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 시점을 2045년으로 예측했다가 2030년으로 앞당겼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할 경우, 인간은 어느 순간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니 인류멸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117) 우리 정부에서도 AI와 관련하여 윤리지침을 만들었다. 동아사이언스, "AI, 인간 자유와 권리, 존엄성 보장해야- 첫 AI 윤리원칙 제정", 2019. 11. 12.

118) 동아사이언스, "사생활 침해부터 AI 오작동까지", 2016. 3. 15.

119) 아시아경제, "AI 패권- 기로에 선 한국. 양과 질에서 격차", 2019. 11. 19.

럼, 기독교의 기본 개념인 하나님, 인간, 창조성 등을 사변적으로 건드리면서 이를 넘어서려는 AI의 트랜스휴머니즘의 담론의 형성에 신학은 부지런히 대처해야할 것이다.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대경은 4차 혁명 시대에 AI 설교자의 출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121] AI와 종교는 오늘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더 큰 연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때문이다. 첫째, AI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와 교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가 영향을 받으면 교회도 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AI의 도래와 더불어 트랜스휴머니즘 같은 새로운 종교(믿음 혹은 신앙)들이 생겨난다. 셋째, AI에게 전자인격 혹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격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는 철학이나 법학을 넘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은 내면적 공허함으로 인해 더욱 더 교회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성"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혹자는 '설교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한 성령의 감동과 더불어 자신의 체험과 "인격"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로봇 설교자의 설교는 비성경적'이라고 한다. 여기에 논의의 핵심이 있다. 로봇 설교자는 인간 설교자를 대체할 수 없다. 인공지능의 기능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음이 없기에 인격이 없고, 인격이 없기에 영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인공지능은 결코 설교자를 대체할 수 없지만 목회를 돕는 훌륭한 도구가

120) 기독일보, "인간 넘은' 알파고(AI)의 도전, 신학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장신대에서 공개신학강좌를 열고 '인공지능 시대, 하나님을 말하다'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기독교 신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발표를 가졌다.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인공지능과 기독교 신앙, (IVP, 2018), 참고.

121) 전대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목사의 가능성과 그 문제: 마음, 영혼, 혹은 '의식적 의지'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조직신학연구」, 제32권(2019), 10-50.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설교자?

현 사회는 IT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인간과 같은 기능을 결합하여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인다. 이 같은 인공지능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첨단 과학시대에 설교는 어디에 머무는가? 이것은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분야를 컴퓨터가 수행 할 수 있는 시대를 사는 현 시대의 신앙 공동체에 묻는 질문이다. 인공지능은 전 분야에 걸쳐 인간사회에 혁신을 가져왔다.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니다. 최첨단의 과학기술이나 전자매체는 예배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었고, 미래교회의 예배와 설교사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정보의 공유와 데이터의 협업시대를 맞이하는 혁신적 창출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설교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컴퓨터가 스포츠나 날씨 등의 객관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글은 인간보다 기계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인간은 오류가 있거나 실수를 하지만 기계는 인간보다 실수의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실용적 측면에서 더 우수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감성을 담아내는 문학적 표현, 즉, 시나 수필까지도 가능한 시대가 올지 모른다.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은 인간의 감정을 읽고 해석하는 기계 등장에 어색하지 않다. 인간의 비이성적 결정이 발현되는 감정의 방식과 패턴을 기계가 파악하여 추론하는 형식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각 신앙인에게 있는 영성의 성향을 구분하여 그 패턴을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딥러닝에 의한 빅데이터는 그 형태를 체계적으로 구

분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신앙인이 선호 하는 말씀구절을 통한 설교 리스트를 구비할 수 있을 것이고, 신앙인이 주로 듣는 찬송가나 CCM 등 종교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영성의 다양한 분야도 분석하여 적실성 있는 내용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인공지능(AI) 로봇이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말과 행동들을 딥러닝, 빅데이터를 통해 보고, 듣고 이해하여, 그것과 소통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결과적 데이터를 수합한 후 연결한 어떤 모델을 추출할 수 있다면 그 기계는 사람의 감정과 소통하는 듯 대화할 수도 있다. 이때 기계의 표현은 사람을 흉내 내는 감정머신일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가상현실에 뇌가 착각하듯 감정머신에게 인간감정의 마음을 줄 수 있다. 즉 기계의 생각에 인간이 동요될 수 있고 인간과 기계 로봇이 공존하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현실적 인류인지의 여부는 논란이 뒤따르겠으나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 인공지능 로봇 페퍼는 치매환자나 독거노인의 즐거운 상대자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 AI 로봇의 활약에 사회적 합의 및 윤리-도덕적 인류의 보호,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핵심에는, 마치 창조냐 진화냐 빅뱅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와 비슷한, 즉 그가 가진 신념에 놓인 가치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 같은 시대를 맞이하는 신앙공동체 설교자는 설교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더 집중하여 설교자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거기에 설교자의 사명과 그의 정체성이 깃들 수 있다. 앞으로 기계는 모든 정보에 더욱 정교해지고 그 획득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정보와 속도에 있어서 인간은 기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미 물리적 차원의 모든 환경에서 기계는 인간을 앞서 가고 있다. 하지만 인류는 물리성에만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는다.

설교에 AI 사용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AI는 인간 생활 깊숙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와 설교자들은 이런 최신 과학 기술을 목회에 사용하는 좋은 방법은 AI를 이용하여 설교를 만드는 것이다. 인텔의 비전은, '연결된 스마트한 세상'이다.[122] AI는 컴퓨팅 분야의 새로운 혁신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계 툴, 공장 시스템 및 증기 동력이 산업 혁명을 일으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변화를 가져왔듯이 데이터, 신경망 및 컴퓨팅 파워로 유발된 인텔리전스 혁명이 진행될 것이다. 세상이 스마트해지고 연결되면서 AI 전제가 강화되고 있다. AI는 학습된 경험을 기계가 채택해 직접 감각, 추론 및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다. AI 스펙트럼에서 AI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능을 활용해 종합적인 머신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게 한다.

AI는 인간의 감각과 능력을 확장시켜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우리 주변의 세상과 상호 작용하며,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AI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텔은 AI 기술을 구현하고 가속화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 AI가 운전, 소방 및 광업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생산적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학, 과학적 발견, 교육 및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 전례 없는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다만 설교에 AI를 사용할 경우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설교자는 영성적 설교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설교자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정보 제공자가 아니다. 설교자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이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

122) intel Newsroom, "인텔리전스 혁명: 보다 나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텔의 AI 비전" 2016. 11. 21.

잡기 위해 최신 기술의 습득이나 사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성을 붙잡아야 한다.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인격'이다. 설교자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설교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회중과 인격적 교류를 하는 목자로써 신앙의 신비적인 사명에 대한 설교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설교자는 청중 및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영혼의 신비적 존재성 가운데 그의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때문에 설교자의 위치를 훌륭한 지식과 정보의 수집자 기능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 설교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영혼의 존재자들과 함께 영적 소통으로 교류하는 존재적 정체성을 지닌다. 아무리 첨단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결여된다면 영적으로 감동을 주는 설교일 수 없다.

그리고, 설교에 AI를 사용할지라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무리 AI 기능을 사용해 해석적 능력과 학술적 문제 그리고 수사학적 스피치의 능력을 가질지라도 설교자 개인을 대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술적 능력의 문제는 수사학을 포함하여 해석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의 인터넷 공유화로 모든 지식의 연계성으로 '평준화'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첨단 과학, 인공지능 로봇 문화의 수용은 급격한 설교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따른 결과로서 설교자의 인격적 요청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123] 결국 설교자와 신앙공동체 회중은 물리적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적 소통과 교류를 비물리적 실체에 집중함으로서 설교의 본질적 지향점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설교의 의미를 찾게 된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고 시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촉구하는 신앙 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커뮤니케

123) 임원택, "한국교회와 청교도 설교,"「복음과 실천신학」, 28(2013), 79-85.

이션은 언어적 물리성을 초월하여 비물리적 영적 교류로 신앙공동체 소통방식을 이룬다. 과거의 설교자가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언어적 해석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면, 지금은 그 지식의 정보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모든 데이터의 조합과 해석, 그리고 그 내용의 추론에 이르기 까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빅데이터로 컴퓨터는 신속하게 인간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딥러닝 방식의 실시간 빅데이터는 성서언어의 해석과 더불어 처해져 있는 문화적 상황에 맞는 적용을 도출할 수 있으며, 그 추출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신앙공동체와 설교자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좋은 공감을 형성을 할 수 있는지, 그 효율적 확률 가능성을 빅데이터의 도움으로 높일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데이터의 공유시대로서 신문기사 작성과 시나리오 구성 등 컴퓨터를 통한 모든 자료의 연계와 정보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교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인 설교 내용과 방식의 적실성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정보 능력과 지식의 획득이 가능하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인 정보 평준화 시대에도 과거의 자료 전쟁, 정보 전쟁과 같은 경쟁이 유효하겠는가? 인공지능 컴퓨터는 빅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자료와 정보의 내용 을 찾아낸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인간 심리유형을 분석하여 추론할 수도 있고,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이해의 패턴을 파악하여 정확한 자료로 데이터화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의 효율성은, 성서를 바탕으로 설교의 구성과 내용의 연결, 그 가능성의 모든 모델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세상에 나온 모든 정보자료와 관련지을 수 있는 상황 적용의 적실성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개인만 정보를 소유하고 그것을 아끼며 사용하던 시대와는 다르다. 오히려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대에 직면한 것이다. AI는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성경 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19-22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교회당에서 모이는 현장예배를 비롯해 전도나 선교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이 기본인데, 모이기 힘들어지니 공동체도 약해지고,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가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초월적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거나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방역에도 힘쓰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에도 힘써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간이 모일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세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뜻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도들은 제물을 드리고 피로 제사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 역시 일년에 한번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히 10:10). 그렇게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

간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 양되시는 예수님의 피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없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은혜로 오늘의 성도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중보자이거나,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히 10:11-12절을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언약의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탁월하고, 능력 많으신, 오직 한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실 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히 10:20)이 있어도 스스로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도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 나아감을 비교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번제단을 통과하여 물두멍에서 씻고 나아갔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바꾸어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10, "하

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하늘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미래 교회의 예배

7.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예배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던져야 할 질문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다. - 에릭 퀄먼[124]

소셜미디어가 현대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삶의 일부가 됐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페이스북을 키고, SNS를 통해 사건 사고를 뉴스보다 빨리 접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이제 소셜미디어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소통 방식과 마케팅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기에 가히 '소셜미디어 혁명'이라 할 만하다.

소셜미디어는 개인을 표현하고 정보를 습득, 공유하며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유용한 커뮤니티 도구이다.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실시간성이 강조되며 '창의, 협력, 소통' 플랫폼이

124) 에릭 퀄먼, 『소셜노믹스(Socialnomics)』, (에이콘출판, 2009). 세상은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축에는 소셜미디어가 있다, 소셜미디어의 성장을 촉진하는 배경에는 미디어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밀레니엘 세대가 있어,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의 한 마디가 교회에도 아픔을 준다.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다". 교회는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문을 닫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부상하고 있다.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 유통할 수 있고 긴밀히 연결되는 매력에 힘입어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 미디어 사역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나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모두 메시지 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 사역의 중심이 되는 공간은 교회 홈페이지이며, 대부분의 교회 홈페이지는 교회에 대한 소개, 교회 내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공지, 목회자의 설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회에서 제작된 메시지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형태인 것이다. 미디어의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방적인 미디어 활용 방법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교회의 온라인 사역은 전달에는 충실하나 청중의 목소리를 듣는 피드백(feedback)에는 취약한 구조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원리가 교회 온라인 사역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중의 사회적 참여적 활동과 개인미디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역 방식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의 교회 온라인 사역에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대중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대표적인 매체로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있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125]의 이용자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과 초고속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증대는 문화와 사회에

125) 보이드와 엘리슨(Boyd & Ellison)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개인의 프로필을 구성하고,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연결을 공유하고, 그 연결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Danah Boyd & Nicole B. Ellison,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11.

대중적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창의적 표현과 소통, 협력하는 환경이 보편화 되면서 교회 역시 복음전파와 예배 활용에 사용되고 있다.

교회가 소셜미디어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첫째로 사람들 간의 관계 및 의사소통에 쌍방향적 전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교회가 전파하는 미디어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메시지 생산과 이용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여러 경로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교회의 많은 콘텐츠들을 오프라인이나 개방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해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은 파괴적이다. 셋째로,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의사소통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방적 활용에 머물던 교회 미디어 사역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회나 복음전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회를 알리고, 저자의 사상을 전파하는 미디어 개척자들이 많다. 소셜미디어는 이용 주체 간의 상호 작용성을 강조하는 소셜미디어의 특수성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교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교제를 촉진함으로써 성도들을 교회 사역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동참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강화 및 다양한 네트워크 사역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예배 활성화에도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미래교회는 소셜미디어를 적극 사용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등장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누가 어떤 주제로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내 영역을 만들어 놓고 일차적으로 가까운 내 친구들을 끌어 모은다. 개인을 중심으로 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 영역에는 내가 가진 사상이나 생각, 일상 등을 솔직하게 기술할 수도 있고 이를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 특히 상품 구매에 매스미디어보다 지인의 추천에 의존하는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보이드(Boyd)와 엘리슨(Ellison)은 소셜미디어를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자신을 대중에게 혹은 일부 대중에게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받거나 받을 수 있고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고 시스템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관계망을 보거나 연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의 특성을 가진 웹 기반 서비스"라고 정의한다.[126]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전공 분야 및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설진아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진보가 새로운 양식과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창출해 왔고, 소셜미디어 역시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결과물이라고 파악하였다.[127]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와 매스미디어를 구별하는 특징들을 설진아가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었다. 첫째, 접근성(Accessibility)이다. 매스미디어는 전형적으로 개인 또는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 또는 무비용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둘째, 유용성(Usability)이다. 매스미디어의 생산은 전문화된 기술과 훈련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는 그렇지 않다. 또한 어떤 경우에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제작 수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을 재발명하기도 한다. 셋째, 최신성(Recency)이다. 대중 매체가

126) 이호영 외 4인, "소셜미디어의 성장과 온라인 사회관계의 진화", 「정보통신정책원구원 보고집」(2011). 36.
127) 위의 논문, 14-15.

생산하는 커뮤니케이션 발생 시차는 며칠 또는 몇 주에서부터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이에 비해 소셜미디어는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만이 반응에 대한 지체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현재 대중 매체가 소셜미디어 툴을 채택함에 따라 더 이상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구별 짓는 특성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넷째, 영속성(Permanence)이다. 매스미디어는 한번 제작되면 변경될 수가 없다. 가령 잡지가 발간되어 배포된 이후에는 동일 기사를 수정할 수 없지만, 소셜미디어는 코멘트나 편집을 통해서 거의 즉각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128] 이런 특징들을 볼 때 교회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교에 활용할 수 있으니 많은 유익이 있다.

소셜미디어의 특징

예배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려면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트위터는 140자라는 제한된 글쓰기지만 플랫폼 자체의 네트워크 개방성과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모바일 킬러 콘텐츠를 생산 유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미디어이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의 일종인 트위터의 발명은 메신저에 관심이 있던 32살의 청년 잭 도르시(Jack Dorsey)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2006년 3월 도르시는 친구, 직장동료들과 메신저와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를 통해 간단하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서 그해 7월에 정식으로 오픈했으며 음악축제 소식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129] 페이스북이 사람이 매개의 중심이 되는 '관계추구적 미

128) 위의 논문, 38.
129) 설진아,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

디어'라면, 트위터는 공통의 관심사나 이슈가 매개의 중심이 되는 '정보 추구적 미디어'이며,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있다. 트위터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친구를 맺는 팔로어(followers)와 나를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 연결한 팔로잉(following)을 기본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여론형성과정은 기존 여론형성과정과 상이하다. 기존 여론형성과정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130] 첫째, 여론을 감지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여론조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재 여론 상황을 그때그때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트위터에서 형성된 여론은 여론조사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트위터에서 형성된 의견은 기록으로 남지만 다른 팔로우의 반응이 없으면 쟁점화 되지 않고, 빠른 시간 내 잊혀진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의 의견에 대해 다른 이용자의 의견이나 직접 답글, 리트윗 같은 반응이 있을 경우에만 여론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트위터에서는 140자의 단문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여론이 형성되므로 분단위로 여론이 변화할 수 있다. 트위터에서 형성된 여론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형성된 여론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여론형성의 주기가 짧다. 이와 같이 순환성과 확산성이 강한 트위터에서 형성된 여론을 효율적으로 감지하려는 시도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보여준다.

또 다른 강력한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친구, 가족 및 동료들과 더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셜 유틸리티(social utility)로, 2004년 마크 주커버그에 의해 설립되었다.[131]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연결 네트워

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35.

130) 박상호, "SNS의 여론형성과정과 참여행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2012.5), 55-73.

131) Ekaterina Walter, *Think Like Zuck: The Five Business Secrets of*

크와 개인의 사적인 정보나 사진, 음악, 동영상을 수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웹서비스이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영역화된 시스템 내에서 공적 또는 준공적인 프로필을 구성하고 연결을 공유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리스트를 제시하거나 볼 수 있도록 허용된다. 페이스북 월간 사용자 수(monthly active user, MAU)는 2017년에 이미 20억 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이용자도 15억명에 달한다.[132] 지금도 매분마다 400명씩 새로운 사용자가 가입하고 있으며, 전 세계 온라인 이용자의 79%가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이용자 중 여성의 83%와 남성의 75%, 그리고 연령별로는 18-29세의 88%, 30-49세의 84%, 50-64세의 72%, 그리고 65세 이상의 62%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133]

페이스북 이용은 사회성 기술(social skills) 습득에 도움이 되거나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사용자들은 자기표현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느끼며,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지각한다.[134] 즉,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이용은 사회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135]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얻은 정보는 기업 홍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현대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하고 있

Facebook's Improbably Brilliant CEO Mark Zuckerberg (New York: McGrawhill, 2013), 12.

132) ZDNet Korea, "페이스북 또 웃다…월 이용자 23억명 돌파", 2019. 1. 31.

133) 오픈애즈, "2020년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주요 10가지 지표", 2020. 2. 12.

134) 이상돈, 이수영, 김군주, "소셜미디어와 사회적 지지 경험: 페이스북의 게시글에 대한 타 이용자의 반응유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22 권 제 1 호 (2015. 3), 85.

135) 김유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충족 연구: 페이스북 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0권(2011. 12), 72-73.

는 실정이다.[136]

반면 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 과학기술 2018'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과도한 가십, 상관없는 정보, 잦은 시스템 업데이트 등으로 인한 지루함, 권태 등의 이유로 61%의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페이스북 사용을 잠시 중단하였고 20%는 아예 이용을 중단하였다.[137] 교회에서도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사용에서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138]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과 단체, 정부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방법은 바로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 페이지의 활용은 최근 단순한 홍보를 넘어, 기존 카페나 커뮤니티 모임을 대체하는 손쉽고 빠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예배의 활용

소셜미디어는 교회의 예배사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선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홍보하고, 예배 실황을 중계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교회당에 모이기 힘들고 각자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소셜미디어는 큰 역할을 감당했다. 작은 교회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중계하고 나눌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된다.[139]

둘째로, 교회는 일방적인 설교 전파에 그치지 않고 성도들의 피드백을 받아 설교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

136) 양윤직, "기업커뮤니케이션에서 소셜커뮤니케이션 시대로의 전환", Oricom Brand Journal, no. 52(2010. 10), 4.
137) 뉴스핌, "미국 10대 "페이스북 안 해요…유튜브 대세", 2018. 6. 1.
138) Jonathan Howe, "6 Common Mistakes Churches Make on Social Media", Charisma Leader, 2016. 3. 22.
139) Reach & Right, "How Smaller Churches Can Stand Out On Social Media", 2020. 7. 8. 검색.

을 가르칠 때 일방적인 선포에만 머무르지 않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하였다. 또한, 제자들 외에도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온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 반응하였다. 현대교회 역시 일방적인 선포에 그치지 말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회중들의 반응을 살펴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셋째로, 정보의 사유화에서 공유화이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정치나 경제 등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 정보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소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생산하고 일반 시민들은 수용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현상이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나 왔던 것이 사실이다. 목회자가 점유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회중들은 수동적으로 들었던 것이다. 이제 일반 시민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발굴 또는 가공하고 사회적으로 유통 가능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 유통 방식의 변화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설교에서 인용되는 성구들이나, 많은 예화라든지, 영상 자료들도 이제는 성도들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설교자 임의로 가공한 설교나, 표절은 쉽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설교자들은 더욱 설교 작성에 힘쓰게 되니 강단이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다.

넷째로 소셜미디어를 교회의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교제에 있다. 소셜미디어는 기존에 주일을 중심으로 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교회 공동체 구성원간의 소통에서, 각 소통의 주체 간 네트워크를 보다 조밀하게 할뿐만 아니라 소통과정에서 피드백이 활성화되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지위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약화된 포스트 모던시대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박하고 친근한 소통은 교회 내 교육과 교제, 설교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140]

다섯째로 소셜미디어는 교회 공동체 내에 건강한 소그룹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소셜미디어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소그룹모임을 온라인상의 그룹 모임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긴밀한 소통 및 관계에 기반한 다양한 사역들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 찬양단이나, 성가대 연습도 예전 같으면 교회당에 모여 하겠지만,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공유함으로 훨씬 연습이 용이하고 정교해지게 된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 주체간의 쌍방향적인 대화이상의 보다 긴밀한 상호작용이 조성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참여적 활동이 강화되는 등 관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며,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141]

한편, 소셜미디어는 교회에 부가적인 재정 부담을 주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온라인 사역은 홈페이지 구축과 서비스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예컨대 설교 동영상을 전달하기 위해 스트리밍 서버를 설치 운영한다거나 홈페이지 디자인 및 지속적인 갱신을 위해 멀티미디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에 재정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교회 차원이라기보다는 성도 각 개인이 소지한 단말기를 중심으로 전송, 송환되므로 기존의 온라인 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40) 이준, "교회 온라인사역(Online Ministry)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탐색: 청소년사역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28(2011. 3), 285-308.

141) 교회 내에서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Brandon Vogt, "How to Think about Social Networking in Churches" *Christianity Today*, 2011. 12. 20. 저자의 주장을 더 알고 싶으면 다음 책을 참고, Brandon Vogt, *The Church and New Media: Blogging Converts, Online Activists, and Bishops Who Tweet* (Huntington, IN: Our Sunday Visitor Inc, 2011).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들만의 전용 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전용 앱이 없어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계정을 만들어 공지하기만 하면 교회를 위한 강력한 미디어 전략을 세울 수 있다.[142]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를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각을 파악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도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SNS가 온라인 공간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SNS는 교회 리더십이 반드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즉, 소셜미디어를 교회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매체의 하나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인식하면서 혹시 모를 부작용을 검토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성경 속으로
예배의 기본
마 2:1-12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찾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아니어도 즐겨 찾고 사랑하는 성경본문인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을 배우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기본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만약 기본을 무시한다면 많은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예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렸고, 드려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본'에 대해 오해하거나 무지하다면, 과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142) Marisa Williams, Creating a Powerful Social Media Strategy for Your Church", *Outreach*, 2020. 7. 8. 검색.

요? 성경을 통해 예배의 기본을 확인하고 바른 예배, 더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봅니다.

-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마 2:2)

- 헤롯이 궁금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 2:7)

- 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마 2:9)

- 어떤 이가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시 25:11)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동방 박사들은 원어로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동방 페르시아의 제사장이나 가장 똑똑한 지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당대에 인정받는 자들이었고, 명성이 있었고, 매우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등장은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3절을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마고스, 즉,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메시야, 즉 그리스도에 대한 별칭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셉푸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야, 인류의 메시야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전파함으로 인하여 이 소식을 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메시야라는 말 대신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하여 전파된 메시야에 대하여 잘 아는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

의 왕' 메시야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한 후, 마침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메시야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현대인들 역시 종교에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인간은 본래 영적 존재이기에 결국은 메시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별을 보고 왔노라: 신학자들은 이 별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동방 박사에게 보내신 기적의 별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그의 별"이라고 하여 메시야를 알리는 특정한 별이 하늘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기록합니다.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그리고 문득 앞서 인도하는 현상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적의 역사로서 마치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고, 별은 그들을 아기 예수 계신 곳까지 인도했습니다. 별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 매체가 사람들을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익하기도, 해롭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별을 찾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마태는 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면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박사들의 경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야인 것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야는 다

윗의 왕족을 통해 오실 것을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여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세계 만국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기업들보다, 학교나 연구 기관보다.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다면, 지역과 문화를 넘어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미래 교회의 예배

8. 평일에 예배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며,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침체되는 이유를 매우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연구했다. 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얻었는데, 사회 인구학적 저하이거나, 포스트모던주의 때문이라든지, 교회의 타락이나 공동체성의 쇠락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나름대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일성수의 개념이 약해진 때문이다. 즉 교회와 성도들이 주일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기에 한국교회는 침체된 것이다. 둘째는 구역 소모임의 약화이다. 예전의 성도들은 구역이나 소모임을 열심히 챙겼다. 사회 구조의 변동이나 성도들의 삶이 복잡해지면서 예전처럼 구역이나 소모임을 모이지 않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것은 결국 신앙약화로 이어지고 교회침체로 이어졌다. 셋째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거의 없다. 드려도 형식적으로 주말에 한번 드리는 가정도 많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가장이 인도하며,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런 아름다운 전통은 이제 찾기 힘들어졌다. 넷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약화된 것이다. 예배를 드린 후 곧장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많다. 교역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교구의

식구들과 전혀 교제 없이 주일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다수이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책을 만들어 '테이블 운동'을 강조했다.[143] 주일에도 모이고, 주중에도 모여 식탁이나, 일터에서 말씀으로 교제하자는 것이다. 가정예배를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이 호응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에는 설교 전에 그날의 '가정예배' 말씀을 읽고 나눔으로 온 성도들이 한 가족 의식을 갖고 가정예배를 강조했다. 강단 위에 가정예배 말씀 카렌더를 상시 비치해 누구든지 보면서 가정예배를 인식하게 했다. 바로 그것처럼 한국교회 부흥과 재성장을 원한다면 주일예배를 다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미래의 교회는 평일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주일과 평일에 두 세 차례 예배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아예 평일에만 예배하는 교회도 생겨날 것이다.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공동체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왔다. 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가진 예배는 자연스럽게 교회 역사를 통해 오늘까지 내려온 것이다. 비록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에게 주일의 일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전통으로 지켜왔다. 카렌더를 보면, 여전히 주일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 반면에 현대인들 중 다수는 주일을 주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쉬는 날로 보낸다. 그 영향으로 성도들 일부는 시류를 따라 주일을 외부에서 보내는 이들이 늘어나기도 한다.

2013년도 Pew Research Center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인들 가운데 70.6%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응답하였다. 이들 가운데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37%에 이르고, 일 년에 몇 차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33%, 그리고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143) 최종인, 『The Table』, (생명의우물가, 2019).

칭하는 사람도 29%에 이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에 비해서 4%가 증가한 결과이다.[144]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에 따르면 매 주일을 성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66.3%에 달하고, 한 달에 2-3차례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15.4%에 달한다.[145] 특히 코로나19의 연장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보니 주일 개념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제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에 교회가 당면한 과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리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주일의 중요함

성경에서는 안식일의 중요함을 가르친다. 그것은 네 가지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에덴동산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활동 후에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창 2:1-3).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만을 예배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외에는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 안식일의 안식은 인간을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안식이다. 안식일의 목적은 무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견해였을 뿐, 그날을 직업 활동에서 쉬는 것

144)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3/09/13.
145)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142.

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바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사건은 십계명을 주신 것에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날을 구별을 위해 따로 떼어놓았다는 의미이다.[146] 따라서 구별된 것은 예배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십계명에서 제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사람이 쉬기 위해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세 번째 사건은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이다. 만나는 광야라는 한정된 장소에 내린 비상양식으로,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농사지어 거둔 곡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 양식'(시 78:23-24)이라고 부른다. 만나를 거두는 양은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2.34kg)이었으며, 안식일 전날인 제 6일에는 평일보다 두 배를 거뒀다(출16:16-18, 22). 제 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백성 중 더러 제 7일에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출16:26-27).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참된 자유를 누리고 모든 생활이 건강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부활을 기념하는 사건이다.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모였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행 20:7-9).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금을 거두었던 날도 매주 첫째날, 즉 주일이었다(고전 16:1-2). 이렇듯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주일예배의 기원

일요일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하는 날로 정착되었을까? 초기

146) Iain D Campbell,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God, the Christian and the Sabbath* (Dayone C/O Grace Books, 2005). 45-48.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와 그 문화에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모임을 이어갔지만, 예수의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로 그 모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 날을 한 주간의 첫 날로 기록하고 있다. 신약성서에는 3곳의 본문에서 주일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가졌던 것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위해서 드로아에 함께 모였던 바울과 그의 무리들은 주일을 지내고도 더 머물러 날이 늦도록 설교하였다. 성경은 "떡을 떼려" 이들이 모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행 20:7-12). '매주 첫날에'(고전 16:2), 그리고 '주의 날'(계 1:10)은 모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주일의 의미였다. 기본적으로 안식일과는 그 개념과 실제에 있어서 구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초기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으며, 그 주일은 종말론적 성격이 강한 안식일의 개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의 영향 하에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어떠한 의무감도 없었기에, 예배를 위한 요일을 안식일로부터 일요일로 옮기는 것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특별히 부활 후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의 자리가 한 주의 첫 날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에, 이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성찬도, 초기에는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으로 옮겼을 것이고, 이후 자연스럽게 일요일 오전으로 자리를 옮겨 왔다.

초대교회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는데, 여기에서 '주일 성수'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들이 주일을 지키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마르바 던(Marva J. Dawn)의 통찰에 의하면, 그 첫 번째는 그침의 차원이었다. 이것은 단지 일 자체의 그침만은 아니었다. 마르바 던은 "성취와 생산의 필요에 대한 그침,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성

공의 기준으로 인한 염려와 긴장에 대한 그침, 소유욕과 문화에 대한 그침,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생겨나는 단조로움과 무의미에 대한 그침"까지 포함한다고 했다.[147] 일을 그치는 것(Ceasing Work)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이며, 근심, 걱정, 긴장, 욕심을 멈추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쉼의 차원이다. 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으며, 그분이 깊이 원하시는 바였다. 주일은 예배를 위해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진정한 쉼과 영적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쉼'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누하'는 일과 삶의 긴장으로부터 자유와 같은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수동적이고 부정적 차원보다는 훨씬 적극적 의미를 가진 단어다. 이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차원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쉴 만한 물가"라는 표현에서 바로 '메누호트'(메누하의 복수 연계형)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그분 품에 있을 때 맛보게 되는 차원으로 연결한다.

세 번째는 받아들임이다. 주일을 지키는 보다 적극적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온전히 잠기는 것이며,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일이다. 즉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려는 결단과 삶의 실행으로 나타나야 한다.

네 번째는 축제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송축하는 예배드림으로 귀결됨으로 주일을 완성하게 된다. 예배는 시간을 때우는 자세나 딱딱한 의식과 경직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경축과 감격으로 채워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두 시대 모두 예배

147) Marva J. Dawn, *Keeping the Sabbath Wholly: Ceasing, Resting, Embracing, Feasting* (Grand Rapids, Eerdmans, 1989). 마르바 던은 책의 부제와 같이 안식을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그침(ceasing), 쉼(resting), 받아들임(embracing), 축제(feasting)이다.

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이며, 이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예배로 시작되어서 예배로 그 정체성을 지켰으며, 오늘도 예배하는 모임이다. 특별히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가 되는 은혜의 수단을 경험하게 된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함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됨을 경험하게 된다. 찬양, 기도, 말씀, 봉헌, 그리고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증하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 예배 공동체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함의 본질적 의미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주일예배의 강화

주일 예배는 공적이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공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주일 예배이다. 비록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많은 모임과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것은 예배이며, 이는 주일 예배이다. 교회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타낸다. 교회의 사명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고, 교회의 과거 역사와, 오늘의 기도 제목, 그리고 미래의 선교적 사명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 나타난다. 비록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에게도 주일의 예배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향과 같은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주는 시간과 공간이다.

그럼에도 현대 예배가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가 있다. 일부 계층, 혹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주일 예배 공동체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주일 예배는 교회의 모든 것에서 우선적이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 차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주중의 예배나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단순히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 참여를 강조하고, 주중의 신앙생활에 대한 독려가 이들의 영성을 깊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오히려 이들이 참여하여 드리는 주일의 예배를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하루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도 영성을 유지하고, 더 깊어지도록 주일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나는 금년도 교회표어를 "더 잘 예배하는 교회"로 정했다. 성도들의 신앙확인카드를 나눠주고, 주일예배 설교를 압축하여 "인생을 바꾸는 3분 말씀"으로 편집하여 나누고 있다. 주일의 예배가 교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일 설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수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온 사역들을 중단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주일예배를 여러 사역을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교회는 힘을 잃었고, 그 증상으로 예배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다. 그렇다면 주일예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유우열 목사는 예배 회복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설교가 변해야 한다. 성도에게 듣기 좋고 편한 설교를 넘어서야 한다. 미국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 총장이 말한 '청교도의 설교 포인트'가 기억난다. "청중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가 아니라 청중을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유쾌하지 않았고 마음 무거웠고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성도에게서 '아멘'

을 많이 이끌어냈다고 해서 좋은 설교인 것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불순응하게 해야 한다. 존 스토트는 진정한 제자의 첫 번째 요소는 불순응이라고 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상황주의, 자기애'에 대한 불순응이다. 설교자는 하나님 중심에 서서 성도에게 희생과 순종을 요구해야 한다.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고 창조질서에 입각해서 예배하며 삶을 이루어 가도록 독려해야 한다.

둘째, 예배가 다양해지고 특화되어야 한다. 예배 회집 인원이 줄어들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 성도가 힘들어서 참석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해 예배나 모임을 없애거나 시간을 줄이는 판단을 하기 쉽다.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은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보다 각자 쉬는 시간으로 대체한다. 이미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었고, 최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인해 여가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 오히려 영적인 활동이 육적인 활동의 풍성함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것을 걱정해야 할 때다. 교회는 예배 시간을 특화시켜서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충전과 기쁨을 얻도록 해야 한다. 육신적 쉼을 통해 얻는 즐거움보다 더 나은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목회자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최후에 한 명이 남아도 그 한 명과 예배하겠다는 목회자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 모이는 성도 수에 예민할 필요가 없다. 새벽에 한 사람이 오면 그 한 사람과 기도하면 된다. 저녁예배나 수요예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해야 한다. 성도의 쉼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축소하지만, 실상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쉼도 필요하겠지만 쉼을 추구하다가 본질이 약화될까 두렵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예배가 약화됨이다. 한국 교회에 예배가 축소되고 사라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 질병의 신호다.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

날 것이고 영적 암흑이 몰려올 것이다. 주일의 회복을 위해 박차고 일어나 현실을 돌파해야 하겠다.[148] 나는 유우열 목사의 말에 깊은 공감을 갖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더욱 주일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온 정성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한다.

주일예배의 회복

주일예배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주일예배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앞으로는 설교 중심의 예배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본다. 개신교 예배에서의 설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나친 설교 중심의 예배는 "설교가 바로 예배이다"라는 그릇된 예배관을 심어 줄 수 있다. 예배에 대해 단순한 이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만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예배는 통전적 이해에 기초해야 된다. 예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예배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은혜의 통로이다. 예배의 다양한 순서와 요소들, 즉 기도, 찬양, 성경봉독과 같은 직접적인 언어적 요소들 뿐 아니라 상징과 침묵과 같은 비음성적인 요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설교는 그날의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비록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다른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설

148) 유우열, "사라지는 예배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목회와신학」 (2018. 8).

교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감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예배에서 설교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다양한 예배의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목사 한 사람이 지나치게 중심이 되는 예배, 배움과 가르침 중심의 지성적이며 이성적인 예배는 예배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래에는 설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 예배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설교중심 예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이며, 은혜의 수단이다. 나는 주일예배에서 기도 순서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기도나 목양기도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 순서를 많이 넣어야 한다.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은 자신의 기도제목과 중보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를 듣기만 하는 수동적 예배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신앙적 도전과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 통성기도, 침묵기도, 찬양기도 등으로 기도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예배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대부분의 교단 산하의 교회들은 전통이나 교단 예배지침서에 따라 예배순서를 정해 드렸다. 이런 경우 예배의 순서에 변화를 주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예배의 순서에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면 예배의 거룩성이 손상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오히려 그동안 드려온 예배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교회에서 2부예배를 '열린예배'로 형식을 바꾼다고 할 때 많은 반발이 있었다. 사실 예배의 형식에 변화를 주는 것과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는 전혀 상관성이 없다. 도리어 예배에 변화를 주게 되면,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다. 예배의 변화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다. 변화를 시도하는 목적은

회중들이 예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변화의 시도는 예배의 순서와 구성 요소들을 단순히 바꾸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 변화를 통해서 회중들이 예배에 더 깊이 참여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주중 예배

주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교회에서는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늘어날 것이다. '주일 대예배', '주일 낮 예배' 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때 주일 낮 예배는 대개 주일오전 11시의 예배였다. 주일오전 이 시간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주일성수를 어긴 것처럼 취급받았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일 낮 예배를 고수할 것인가? 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들 가운데는 성도들의 일상을 고려하여 주중에 예배하는 교회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는 평일 예배를 거부하는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할 수 있겠으나, 첫째 한국교회는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것에 소홀하며, 구속의 역사를 강조하는 반면 역사적 차원이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는 전도는 열심이지만 세상 속에서 복음의 실천은 소홀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주일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주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에는 교회중심적 신앙관, 선교관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구교회와는 달리 한국교회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장

해 온 교회이다. 그것은 신앙의 성격이 강한 만큼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적 특성이 형성되었다. 이들에게 예배는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불안과 상처,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주일예배를 최고로 여긴다. 상대적으로 주중에 모이는 것을 소홀히 여길뿐더러, 주일예배를 평일에 드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한다.

셋째 한국교회의 신앙관은 개인적, 영적, 교회적, 내세적인 특성으로 형성되어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으나 사회적, 역사적 차원에서 매우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적 행사”로 대변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부족하여 열정적인 복음전도에 비해 사회적 공적 영역에서의 실천은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드리는 예배 역시 교회 안에서 모인 신자들의 예배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이들에게는 평일에 드리는 예배가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다.

미국교회의 주중 예배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 차세대 교회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머징 교회(Emerging Church)들의 경우 이미 주말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진리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세대에게 하나인 진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그들이 보다 쉽게 기독교 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발맞추어 하나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꽤 많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주말 예배, 혹은 주중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인종 국가라는 미국적 독특한 환경에서 교인들의 직업이나, 일상, 문화적 배

경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한 가지 양식, 주일 하루에 드리는 예배를 획일적으로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글렌도라 그레이스교회는 주말마다 6번의 다른 예배를 드린다. 맥클린 바이블교회는 미국의 10대 교회에 선정된 '매가처치'다. 이 교회는 장년 예배와 젊은이 예배를 두 개의 교회로 완전히 구분해서 드린다. 장년 예배의 경우, 월 4주 각각의 예배에 음악 형식을 달리한다. 이 외에도 오클라호마 라이프교회(www.lifechurch.tv), 그랭거 커뮤니티교회(www.wiredchurches.com) 등 많은 교회들이 주중에 예배하고 있다. 새들백교회는 토요일, 주일 각 2번씩 4번의 주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토요일은 오후 5시와 7시에, 주일은 오전 8시 45분, 11시 45분이다. 새들백교회의 주말예배는 '구도자 민감 예배(Seeker Sensitive Service)'라고 표현한다. 이는 믿지 않거나, 교회와 동떨어져 있는 자들이 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는 데서 나온 예배를 말한다.

한국교회는 정서상 주중 예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성도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할 때,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디지털 문화의 보급에 따른 소통방식 변화에 발맞추는 결단이 필요한 요즈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위기가 어쩌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무조건 주중에 드리는 예배를 주일예배로 대체하자든지, 주중 예배를 정당화하자는 말은 아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도되는 대안들을 객관적이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자는 것이다. 세밀한 관찰과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예배를 지킬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가 찬성하거나, 혹은 반대하든지 간에 미래교회에는 주중에, 평일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들이 늘어날 것이다.

성경 속으로
주일을 지키는 자의 복
사 58:13-14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그것도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습관만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성수는 그 사람의 '영적 온도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인지 본문 14절에서 소개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즐거움은 영혼의 안식이며, 기쁨입니다.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며,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잠 29:26절에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십니다.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행복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기뻐하시는 일인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벌려고 주일임에도 나가 일합니다. 쉬지 않고 달린다고 빨리 갈수 없습니다. 전 9:11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조금 늦어도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은 일차적으로 고지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이차적으로 안정과 번영에 대한 상징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본래 고향이었던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안정과 번영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보장하고 명예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목회자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대신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야곱의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으나 돌아올 때는 세 떼를 이룰 정도로 큰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인생의 삶에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책 때문에, 일터의 사정으로, 시험을 치루느라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주일에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려고 부러 주일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 권면합니다. 주일을 잘 지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래 교회의 예배

9.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코로나19가 주는 충격이 엄청나다. 물론 대상들 마다 다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예배일 것이다. 작은 교회들은 물론이고 큰 교회들도 영상예배에 대해 이해가 많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영상예배로 전환하면서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쳤다. 봄 심방을 취소하거나, 전화로 심방을 대신하기도 하고, 교회학교의 경우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온라인을 통한 교사들 미팅이나 교육, 영상자료 제공으로 주일예배를 대신했지만, 성도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금방 종료될 것이 아니라 길어진다는데 있다. 우리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매주 드리는 예배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할 때이다. 그동안은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드렸다면, 지금은 주말이 되면, 이번 주는 무사히 예배할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된다. 당장 나부터도 주말에 확진자가 얼마나 되나 확인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게 된다.

예배의 문제

본래 종교개혁자들은 초기 기독교의 예배 전통을 회복하는 운동을 전

개하면서 중세교회가 초기교회의 예배 전통을 왜곡, 굴절, 변질시키거나 첨삭한 것들을 복원하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과제는 예배개혁을 통한 신앙개혁이었다. 개혁자들이 초기교회 때부터 전승된 예배유산을 보전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중에 과격한 개혁자들에 의해서 예전적인 예배전통을 약화시킨 경향도 나타났다. 그리하여 프로테스탄트교회는 개혁의 강조점에 따라서 예배의식이 달라지고, 여러 교파의 생성으로 예배의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예배형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개혁파 교회는 초기교회의 예배전통을 회복해나감으로 가톨릭교회가 굴절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다시 바로잡는 예배회복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해왔다.[149] 송인웅 목사는 예배에 대한 개혁자들의 공로를 몇 가지 소개했다. 특별히 공헌한 것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복음)을 회복한 것이요, 둘째는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린 회중을 찾아서 예배의 중심에 앉힌 것이요, 셋째는 제사상으로 만들어버린 성찬상을 하나님 백성의 잔칫상으로 회복한 것이며, 넷째는 사제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예배 프로그램을 "회중의 예배"(of Laos), "회중을 위한 예배"(for Laos)로 회복시켰다는 것이다.[150]

모든 종교에 예배의식이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특히 예배가 중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예배는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한다. 예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춤추기도 하지만, 때론 예배가 잘못되어 생명력을 잃고 타락하기도 한다. 과거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예배가 흥겹고, 축제같이 잘 드려질 때 교회는 매우 성장하고 성도들이 차고 넘쳤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인간 중심의

149) D. G. Hart and John R. Muether, *With Reverence and Awe: Returning to the Basics of Reformed Worship* (Phillipsburgh,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2002), 153.

150) 손인웅, "한국교회 예배 이대로 좋은가?" 「기독교사상」(213.4) 22-24. 그는"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estreformanda)라는 말과 같이 예배도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잃었다. 교회들이 예배의 힘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째는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와 세속주의 때문이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데,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온 세속주의가 예배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의 영향이다. 예배에서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대신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위한 인간중심, 편리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에서 약화되는 것이다. 교회의 장년부, 교육부서 할 것 없이, 성도들의 편리함을 이유로 예배를 빼뜨리게 되고 교육부서도 일주일에 고작 한 번의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교역자들이 예배를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참 사명이 예배에 있음에도 성도들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치지 않아 예배의 중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이호영은 성도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면서, 특히 예배중 기도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며, 말씀선포의 중요성도 강조하라고 했다. 여기서 말씀선포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봉독이다. 그는 기독교의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성찬을 무작정 실시하기보다 가르쳐 집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주일저녁예배와 수요기도회 역시 문제점이 있다면서 예배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51]

네 번째는 흥미와 감동으로 눈길을 끌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 때문이다. 회중의 관심과 기대 욕구에 따라가는 재미와 감동을 추구하다보니 예배의 신비감, 즉 축제적인 예배로 치우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송인규 목사는 이것을 '조작된 감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인위적으로 청중을 감동시키려는 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152]

---

151) 이호영, "한국교회의 예배: 문제점과 개혁을 위한 방향", 「기독교사상」 41권 10호(1997), 44-57.

152) 송인규, "무엇이 예배에서의 진정한 성공인가", 「목회와신학」, (2002. 10).

다섯째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예배출석이 저조하다고 교회들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한다. 그 결과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소홀하게 되어 예배가 약화되는 것이다. 예배가 아닌 프로그램으로도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는 오류가 현대교회에서 예배가 약화되게 한 것이다.

최진봉 교수는 최근 기윤실 토론회에서 "'예배 없는 교회, 교회 없는 예배'라는 초유의 상황을 코로나19가 가져왔다. 예배 출석은 곧 교회 출석이라는 예배와 교회 간 필연적 관계가 깨졌다"며 "앞으로 주일에 부담 없이 교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교인들이 증가하고 교회의 절대 시간으로 여겨진 '주일'로서의 개념도 점차 상대화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153]

정장복 교수는 중세 교회를 병들게 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154] 중세, 그중에 중세 후반기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 행위인 예배의 현장이 그 의미를 잃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발생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 교회의 신앙이 약화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세의 화려한 의식만 있고 생동감을 잃어버린 예배, 예배 속에서의 말씀의 부재,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예전(禮典) 언어, 라틴어로 말미암은 회중과의 커뮤니케이션 단절, 성만찬에 대한 신비주의의 강조로 말미암은 미신적 신앙 등이 교회를 변질시킨 것이다.[155]

나는 한국교회 역시 침체의 원인을 외부에 있지 않고 기독교 내부에 있다고 늘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나 신학적 문제 등이 포함되겠으나, 예배의 추락이 교회의 추락을 자초하는 것이

153) 기독교연합신문, "교회 나가야 예배라는 인식 깨졌다… 예배 회복은 이렇게!", 2020. 5. 27.

154)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1999), 110.

155) William D. Maxwell,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An Outline of Its Development and Form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72.

다. 예배에 대한 바른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예배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정확한 이해가 없이 지금까지 예배하는 일에만 그저 열심을 가졌다. 그러다보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새삼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배 문제는 매우 다양하여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교회의 예배는 지금처럼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로 전환될 것이다.

세상과 단절된 예배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의 예배는 세상과 단절된 예배였다. 주지하다시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세상으로 나가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즉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간의 만남이요, 그것은 다시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 교회는 예배를 지나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간의 교제에만 초점을 맞춘 '교회 안의 의식'으로 제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세상의 교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예배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소홀하게 하도록 했고, 세상으로부터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잇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 역시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모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흩어져서 또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 중 구약의 아바드(עָבַד)와 신약 헬라

어에서의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ια)는 본래 '섬김'을 의미하는 말이다. 예배의식(Liturgy)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다" (마 20:28).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배를 통해서 그 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섬기셨듯이 또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행위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으로 확대되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배신학의 정립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예배 신학이 정확한지? 우리 예배는 신학적으로 정통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이 신학적 정립 없이 함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기독교 신학 가운데 '예배신학'은 매우 중요하다. 예배에는 분명한 신학적인 틀이 있어야 하고, 그 틀 위에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신학이 정립되지 않는 채 마구잡이로 드리는 예배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예배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56]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한국 교회는 자신의 예배가 어떤 신학

156) Frankin M. Segler, *Understanding, Preparing for, and Practicing Christian Worship*, rev. by Randall Bradley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1996), 47.

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구속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은혜를 구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인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계시와 응답의 현장"이다.[157] 그런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과정과 함께 다시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 밖 세상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예배란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삼위일체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 예배, 특별히 한국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만 치중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예배에 대한 이런 신학적 입장의 견지나 제한된 관점은 교회와 세상사회와의 단절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한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열심이지만,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회 스스로가 고립되어져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158]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즉 세상과의 관계를 도외시한 교회의 예배 신학이 가져온 왜곡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예배 신학은 결국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제한시키며, 잘못된 예배는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타락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세 교회처럼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 내부적으로

157) Paul W. Hoon, *The Integrity of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77.

158) 기독일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2018. 2. 25.

는 더욱 부패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재정립해야 한다.[159]

예배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160]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만남"으로 본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한다. 우리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시요 구속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베푸신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영적인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자리인 것이다. 우리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째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161]

예배신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만남과 함께, 다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들과의 수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교제가 있음으로써, 예배를 통해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교제를 최우선으로 여겼다.[162]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

159) 이현웅, "존 칼빈의 예배와 나눔의 실천," 「신학과 사회」 제20집, 1호 (2006. 6): 113-114.

160) J. Stephen Lang, "Fellowship with God", CBN, 2020. 7. 12. 검색.

161) T. David Gordon, "Review Article: The Westminster Assembly's Unworkable and Unscriptural View of Worship?"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5(Fall 2003), 345-356.

는 매우 왜곡되어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열심이지만,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함을 보게 된다.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신앙 양태들이 교회 안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예배신학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교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성도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이제 그 교제의 범위를 세상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배를 믿는 사람들만의 예배로 인식하고서, 예배를 세상과 분리시켜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에 대한 소아적 신학관은 기독교예배를 제한시켜 버린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부터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예배는 사실 전 우주적인 것이다.

예배신학에서 네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예배"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열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세상"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는 신학은 공공의 삶의 영역들을 해석하며 '공적 담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63] 이런 공적신학은 진정한 이웃 사랑의 방법이기도 하다. 미래교회는 예배의 범위를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구원의 방주가 되며,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162) Ralph P. Martin, *Worship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MI: Eerdmans, 1964), 10.

163) Max L. Stackhouse, *God and Globalization: Globalization and Grace*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7), 85.

성경적인 예배

신학적으로 예배를 정립했다면, 우리 예배의 모범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교파의 헌장이나 헌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어차피 헌장이나, 헌법, 교리 등은 모두 성경을 기초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교파별로 예배가 상이하고, 다른 주장을 한다 해도 가장 기본은 성경이다. 가장 성경적이며, 복음주의적인 예배는 어떤 것인가?[164]

첫째,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만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배하도록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말한다(시 100:1-3).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이다. 기독교에서 선택 교리는 무익하거나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라 예배의 원동력이 된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구원의 과정을 배우고, 구원의 전 과정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범사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둘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 예배의 근거가 된다. 주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한다(요 4:23).[165] 윌리엄 보에케스타인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다".[166]

---

164) Robert G. Rayburn, *O Come, Let Us Worship: Corporate Worship in the Evangelical Church* (Grand Rapids: Baker, 1980), 20-21 참조.

165) John M. Frame, *Worship in Spirit and Truth* (Phillipsburgh,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96), 1.

166) 윌리엄 보에케스틴, 대니얼 R. 하이드, 『생기 넘치는 교회의 4가지 기초』, 조계광 역, (개혁된실천사, 2020), 113.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다. 바울 사도 역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8)라고 했다. 여기서 예배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레이번(Robert Rayburn) 역시 이렇게 말한바 있다. “올바른 예배는 예배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경건한 신자들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복종을 바치고, 그 분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 제공하시는 영적 양식을 받는 것이다”.[167] 레이번의 지적처럼 예배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현대 예배를 보면, 예배 인도자들이 회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집례하고 있다. 성경적인 예배는 교회가 예배자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시 116:12, 13).

셋째, 예배의 수단은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으로 예배해야 한다.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에 전자는 예배자 안에 있는 주관적인 현실이며, 후자는 예배자 밖에 있는 객관적인 현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예배는 마음의 문제이자, 성경의 통제를 받는 진리의 문제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성경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감정주의로 흐르거나, 온전한 마음이 결여된 형식주의로 흐를 수 있다. 로버트 갓프리(W. Robert Godfrey)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은 성경을 예배의 지침으로 삼으려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했다.[168]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예배를 구상한다면 이

167) Robert Rayburn, "Worship in the Reformed Church" *Presbyterian* 6. no.1. (1980): 18.

제부터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미래교회 예배라 해서 예배가 교회당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교회 밖으로 나가는 예배자들의 모임은 시작되었고, 일부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김현준은, 1) 제도종교의 성스러움 독점에 대한 저항, 2) 신앙적 순례 외 교회 밖 예배의 긍정, 3) 세속성과 초월성이 통합되는 예배, 4) 차별화된 사회적, 공적 영성의 추구 등으로 주장한다.[169] 논문에서 "가나안 신자들"[170]과 "유목민 신자들"[171], "세속성자 수요모임"[172] 등을 언급하는데, 이들은 "예배

168) W. Robert Godfrey, *Pleasing God in Our Worship* (Wheaton, Crossway Books, 1999), 27.

169) 김현준, "교회 밖 신앙모임의 종교적 기능: 한국 개신교 포스트-복음주의의 탄생과 성격에 관한 시론", 「현상과 인식」, 41(4), 2017.12, 167-189.

170) 가나안 신자들에 대해 이해를 원하면 다음 논문 참고. 박성원, 권수영, "가나안 성도들의 탈(脫) 교회에서의 신앙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4), 2017.11, 69-106

171) 기독교연합신문, "성장이데올로기 벗어나 '유목민적 삶'을 결단하라", 2015. 11. 2. 김회권 교수는 종교개혁기념강좌에서 성령의 역동성이 있는 순례자적 교회의 모형을 제시했다. 그는 "주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려는 순례 여정에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며 "세계를 향해, 이웃의 필요를 위해 가장 귀한 자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성령의 부름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순례자적 교회"라고 주장했다.

172) 매주 청어람에서 모이는 세속성자 수요모임은 "가나안성도,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사는 모든 세속성자들을 위한 예배모임입니다. 거룩한 신앙과 속된 일상의 경계, 제도적 교회와 비제도적 신앙의 경계를 오가며 우리의 신앙과 삶, 세계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는 이들이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 타락해서, 오염되어서가 아니라 아직 충분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틀 안에서 예배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안적 예배를 필요로 한다."[173]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아닐지라도 교회는 세상 속으로 더 많이, 더 자주 들어가야 한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회적 영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예 신앙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에서 보여주는 '사회성'이나 '공공성'은 주변부가 아니라, 복음주의 신앙 자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2회 총회에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요 3:16, 창 12:3, 마 9:35)를 주제로 삼았다. 당시 설교자인 최기학 목사는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말은 이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며, 이제 거룩한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한다."며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과 이 세상을 창조 하신 그분의 아들을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내주었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뿐 아니라, 교회 밖 불신 영혼도 사랑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과학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풍족해도 그것은 착각이다. 하나님 없는 과학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며 "주님은 마을로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다. 마을목회를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신앙의 길을 모색합니다."라고 소개한다. https://ichungeoram.com, 2020. 7. 8. 검색. 세속성자 수요모임에 관한 내용은 안창덕, "세속성자 수요모임의 예배에 드러난 신앙 공공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9(2018), 183-215. 참고.

173) 김현준, 위의 글, 179.

마을 주민을 교인으로 섬기고 목회를 하자"고 했다. 그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며 "이제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찾아 들어가 마을을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74]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미래교회의 과제로 보인다.

한편, 영국의 종교학자 린다 우드헤드와 폴 힐라스는 세상의 종교 형태를 “차이점의 종교”(religion in difference), “인본적 종교”(religion in humanity)와 “삶의 영성”(spirituality in life)으로 나누었다.[175] 전통적인 종교의 구분 방식이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의 종교란, 나와 남의 진영을 구분하고, 나의 종교 진영과 다른 종교 진영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형태다. 대표적으로는 근본주의나 열광 주의적 종교형태를 들 수 있다. 차이점의 종교 중 극단적 차이점의 종교(religion of heightened difference)로 이행할 때, 증오나 갈등, 때로 폭력과 테러 혹은 전쟁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에 거의 대척점에 선 “삶의 영성적 종교”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차이점의 종교가 나의 종교 진영과 타자의 종교 진영의 간극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정체화 했다면, 삶의 영성은 인간의 겉과 속을 이분화 시켜 내적인 확실성을 실체로 간주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삶의 영성”(spirituality in life)[176], “일터의 영성”(spirituality in the

174) 크리스천월드, “예장 통합,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를 주제로 102회 총회 개최”, 2017. 9. 18.

175) Paul Heelas and Linda Woodhead, *Religion in Modern Times* (London: Blackwell, 2000).

176) 가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는, 일하고 걷고 앉고 보고 웃고 먹고 자는 일상생활에서 ‘하느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성찰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교회당 안에서 예배하거나 성도들과 교제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내 생애의 대부분은 ‘하나님 없이’ 지나갈 뿐이다. 칼 라너는 “일상은 꿀도 타지 않고 미화

workplace)[177]에 대한 관심은 서구의 현상만이 아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도전을 줄 전망이다. 데이브 기븐스(Dave Gibbons)는 "교회는 빌딩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발생하느냐에 관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바 있다.[178]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가치가 지배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주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나머지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 우리는 모두 일터로 파송된 선교사이다. 주부는 가정이, 학생은 학교가 그 일터이다. 일터는 삶의 한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곳이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기독교가 일터에서의 영향력을 포기하면 다른 세속적 가치들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하자면 일터 영성에 무심한 교회는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주인을 섬기도록 내모는 것과 같다. 신앙과 일터에서의 삶을 조화시켜야 한다. '교회 안에 갇힌 교회', '세상과 단절된 한국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미래교회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잘 예배하도록 성도들을 도전해야 한다.

하지도 않은 채 견디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일상이 언제나 축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칼 라너, 『일상 日常』, 장익 역, (분도출판사: 1980).

177) 일터의 영성에 대해 많은 책들이 나와 있으나, 한 권을 추천하고 싶다. 이장로, 삶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찾다 (두란노: 2020). 김선일, "한국교회의 블루오션, 일터 영성과 사역", 목회와 신학, (2016. 6), 참조.

178) Dave Gibbons, *Small Cloud Rising: How Creatives, Dreamers, Poets, and Misfits Are Awakening the Ancient Future Church* (Irvine, CA: Xealots), 30-31.

성경 속으로
마지막 때의 예배
슥 14:16-21

예배는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제단예배 - 시내산예배(출 24:1) - 성막예배(출 25:8) - 성전예배 - 회당예배로 발전하고, 초대교회부터는 교회당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움을 느낍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예배학교수인 테레사 베르거(Teresa Berger)는 미래의 종말적 디지털 상황에서 예배도 변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1) 예배 사역의 레퍼토리가 확장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장비와 기술혁신으로 과거와는 다른 예배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2) 온라인 사역들이 예배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 되자 온라인 예배가 신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3) 물리적인 예배 장소보다 함께하는 예배시간을 중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초텍스트적 경험을 선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5)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로 '열린 접근'을 꼽습니다. 전 세계서 동일한 기도와 찬송이 펼쳐질 것을 전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지막 때의 예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누가 여호와께 경배합니까? (슥 14:16)

2. 왜 여호와를 경배합니까? (슥 14:9)

3. 초막절은 누구를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까? (레 23:34)

4. 이사야를 통해 모든 이들이 지키는 절기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사 66:23)

스가랴 14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세계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고 순종하게 되는 비전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런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며(16절): 마지막 때에 인생들의 예배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민족들 가운데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딤후 3:1-9에서 바울 사도는 말세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디모데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딤후 3:2).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사는 인생을 자랑하십시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16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만국의 백성들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유대 백성들처럼 지키는 절기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초막절 지키듯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성결(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속된 것의 대표적 물건인 말 방울이나, 하나님 전의 솥들도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일상적인 소재를 예로 들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건성으로 드리고, 습관적으로 보내는 이들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www.pyunghwa.org